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UP A SMALL GROUP-CENTERED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ISUNG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SANG HOON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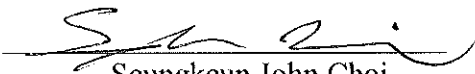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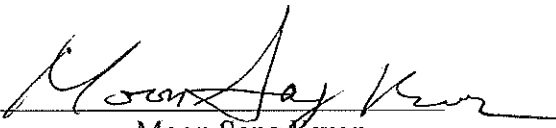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eungkeun John Choi


Moon Sang Kwon


Jin Ki Hwang

August 15,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UP A
SMALL-GROUP-CENTERED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ISUNG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ANG HOON HA

AUGUST 2015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전략
- 의성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최 승 근 교수

하 상 훈

2015년 8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up a Small-Group-Centered Church: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Uisung Presbyterian Church

Sang Hoon Ha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ile many practical ways are suggested for helping churches become healthy Christian communities, this ministry focus paper insists that transforming churches into small-group-centered churches can be one way. Thus, it presents a strategy for building up a small-group-centered church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discusses what the healthy church is in terms of the people of God, the body of Christ,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and the agent of the kingdom of God. It then argues that the essential commissions for the healthy church to obey and to practice are “the double love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through worship, ministry, evangelism, fellowship, and discipleship.

After defining the small group and explaining its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chapter 3 argues that a church must be small-group based in order to be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The chapter then studies the biblical principles of small group ministry and analyzes the small group ministries of the Ulsan Great Light Church and the Hwapyung Church.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y, pastoral philosophy, vision, and current state of the Uisung Presbyterian Church after surveying the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t then describes the church’s existing small group ministry and examines that ministry based on the principles of small group ministry discussed in chapter 3.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chapters, chapter 5 presents a practical strategy for creating a small-group-centered church through effective small group ministry, emphasizing training small group leaders, caring for leaders, experiencing meaningful worship, having genuine fellowship, and so forth.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and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with the hope that it will aid many churches' small group ministries.

Theological Mentors: Seungkeun John Choi, Ph. D.

Moon Sang Kwon, Ph. D.

Jin Ki Hwang, Ph. D.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3
제 2 장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5
제 1 절 교회의 본질에 의해 세워진 건강한 교회	5
1.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6
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8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10
4.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13
제 2 절 건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	14
1. 사랑의 이중 계명 실천	15
가. 하나님 사랑: 예배	15
나. 이웃 사랑: 사역	17
2. 예수님의 지상 명령 실천	18
가. 전도(선교)	19
나. 교제	20
다. 제자훈련	22
제 3 장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24
제 1 절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소그룹의 필요성	24
제 2 절 소그룹에 대한 이해	26
1. 소그룹의 정의	26
2. 소그룹 유형과 평가	27
가. 가정구역 소그룹	27

나. 제자훈련 소그룹	28
다. 전도양육 소그룹	29
라. 셀 소그룹	31
마. 통합적 기능 소그룹	31
3.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32
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옴	33
나. 배운 것을 실천하는 제자 훈련의 장이 됨	34
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	34
라. 효과적인 전도와 정착률이 높아짐	35
제 3 절 소그룹 사역 활성화의 장애요소	36
1. 대그룹 중심의 목회	36
2. 교회의 제도화	37
3. 평신도 리더교육 및 훈련의 부재	38
4. 통합적 기능을 가진 소그룹의 부재	39
제 4 장 부천의성교회의 목회 환경과 사와와 비전	40
제 1 절 의성교회의 목회 환경	40
1. 지역적 환경	40
가. 부천지역 구분	40
나. 가구 현황	41
다. 부천 거주에 대한 인식 및 이사계획	41
2. 경제 및 교육적 환경	42
가. 경제적 환경	42
나. 교육적 환경	43
3. 문화적 환경	43
가. 권역별 문화에 대한 만족도	43
나. 중2동의 문화적 환경	44
4. 목회적 전망	45

제 2 절 의성교회의 역사와 비전	45
1. 교회 역사와 성장	46
가. 개척교회에서 조직교회로의 성장(1982-1994년)	46
나. 선교지향적 교회로의 성장(1995-2004년)	46
다. 교회 분열의 시기(2005-2007년)	47
라. 교회 회복의 시기(2008년-현재)	47
2. 의성교회 목회철학과 비전	48
가. 목회철학	48
나. 목회철학을 이루는 세 가지 기초와 네 가지 기둥	49
다. 의성교회의 목회 비전	50
제 3 절 의성교회 주된 소그룹 현황 및 평가	51
1. 구역 중심의 소그룹	51
가. 구역 중심의 소그룹 현황	51
나. 구역 중심의 소그룹 평가	52
2. 양육 중심의 소그룹	53
가. 양육 중심의 소그룹 현황	53
나. 양육 중심 소그룹 평가	56
3. 기도 중심의 소그룹	57
가. 기도 중심의 소그룹 현황	57
나. 기도 중심의 소그룹 평가	58
4. 전도 중심의 소그룹	58
가. 전도 중심의 소그룹 현황	58
나. 전도 중심의 소그룹 평가	58
5. 성경통독 중심의 소그룹	59
가. 성경통독 중심의 소그룹 현황	59
나. 성경통독 중심의 소그룹 평가	59
제 4 절 통합된 소그룹의 필요성	59

제 5 장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	61
제 1 절 의성교회에서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전략	61
1. 기존 조직과 균형 유지	61
2.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63
가. 소그룹 사역의 방향	63
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	64
3.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 정착을 위한 과정	68
가. 적응기	69
나. 기경기	69
다. 준비기	70
라. 전환기	70
마. 출범 및 정착	71
제 2 절 의성교회 소그룹 활성화 전략	72
1.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십 개발	72
가. 소그룹 리더의 자격	72
나. 소그룹 리더의 임명	74
2. 소그룹 리더의 훈련 과정과 내용	75
가. 소그룹 리더의 훈련 과정	75
나. 소그룹 리더의 훈련 내용	77
3. 소그룹 리더의 지속적인 돌봄	83
가. 지속적 돌봄 과정	84
나. 지속적 돌봄 내용	85
4. 소그룹 구성의 방법과 원칙	86
가. 소그룹 조직과 리더의 역할	86
나. 소그룹 구성방법과 원칙	87
제 3 절 소그룹 운영 지침서	88
1. 소그룹 구성원 조직과 역할	88
가. 소그룹 구성원의 조직	89

나. 소그룹 구성원의 역할	89
2. 소그룹 모임의 원칙과 순서	90
가. 소그룹 모임의 원칙	90
나. 모임 순서	90
3. 소그룹 분가의 원칙과 방법	93
가. 분가 원칙	93
나. 분가 방법	94
제 4 절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와 기대	94
1.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	94
2.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기대	95
제 6 장 결론	97
부록	100
참고 문헌	108
Vita	112

표 목 차

<표 1> 권역별 현황 및 가구특성	41
<표 2> 부채 현황	43
<표 3> 권역별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44
<표 4> 마더 와이즈 커리큘럼	55
<표 5> 의성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	75
<표 6> 새 가족 바로세우기 진도표 ¹⁾	78
<표 7> 통큰 통독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진도표	79
<표 8> 생명의 삶 강의 진도표 ²⁾	80
<표 9> 새로운 삶 강의 진도표	81
<표 10> 경건의 삶 진도표	82
<표 11> 확신의 삶 강의 진도표 ³⁾	83
<표 12>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진도표	84
<표 13> 지속적 돌봄을 위한 전체과정	85
<표 14> 소그룹의 조직표	86

1) 신현수, *새 가족 바로세우기* (서울: 크리스천리더, 2013), 9.

2) 천석길, 최영기,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 (서울: 요단, 2011), 6.

3) Ralph W. Neighbour,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주희채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한국 교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의 부흥기를 끝내고 극심한 쇠퇴기에 빠지기 직전이다.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예측하건대, 짧게는 3-5년, 길면 10년이 한국교회가 쇠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후부터는 고령화로 인한 사역동력의 상실과 교회 재정 부실과 헌금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교 후퇴 및 교육부서 지원 약화 그리고 30-50대의 걸잡을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감소 혹은 이탈 등 거대한 위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⁴⁾고 말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마 5:13-16)으로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부름 받은 곳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롬 12:1-2)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란 고정되어 있는 기구나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⁵⁾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⁶⁾ 이런 삶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의 신앙을 건물 안에서만 평가해 왔다. 목회자의 심방과 건물 내부에서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회 사역이 이

4) 최윤식, “2014년 한국교회를 전망한다,” *크리스찬 스탠다드*, 2014년 2월 17일자.

5) 김영선, *참된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66.

6) 김근진, *기독교조직신학 I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57-59.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열정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치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자각해야 할 것은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한 결정적 이유는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지 않고 건물에 투자했던 것에 있다. 교회가 그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자가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할 때 미국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회가 델러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Gateway Church)다. 1999년에 개척해서 현재 성도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 사역,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 선교 사역, 비전 나눔, 가정 사역, 50대 이상을 위한 모임, 문화 사역(북 스토어, 카페, 스포츠 동아리), 남성과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 결혼식, 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대학교 운영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장해가고 있다.⁷⁾

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라 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다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세우는 교회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의성교회는 부천시 중2동에 자리 잡고 있는 33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 교회다. 본 교회는 1대 목회자인 황영석 원로목사(1982년 1월-2006년 12월)와 2대 담임목사인 강용만 목사(2007년 1월-2015년 5월)가 시무했다. 1대 목회자와 2대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그로 인하여 장년 성도의 출석이 12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현재는 장년 성도 8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수적 부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본 교회의 3대 목회자로 세워지기 전에 부목사로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

전통적 교회가 지닌 한계점들을 의성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목회자와 당회 중심의 교회 운영으로 인해 평신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양육이 부족하다는

7) <http://gatewaypeople.com>

것이다. 둘째, 중직자라는 직분 자체가 계급화 되어 있다. 셋째, 미비한 원칙아래 전통적 관습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 넷째, 교회 내부지향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의 삶과 분리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⁸⁾

본 연구자는 전통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특성이 의성교회 안에서도 존재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 그 대안으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함이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이중 계명(막 12:28-34)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마 28:18-20)을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통해 실현하는 것에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개요

본 논문은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부천 의성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이중 계명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소그룹 안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되 교회의 본질에 의해 세워진 건강한 교회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과 소그룹의 이해 그리고 소그룹의 장애 요소와 소그룹을 통해 소그룹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의성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교회 역사와 비전 그리고 목회 환경을 살펴보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소그룹의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8) 배종석, 양희승,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12-13.

제 5장에서는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의성교회에서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전략과 소그룹의 활성화 전략, 소그룹 운영 지침서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와 기대를 논하려고 한다.

제 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으로 본 연구를 맺는다.

제 2 장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릭 워렌(Rick Warren)은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에 있다”⁹⁾고 말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수적성장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 그리고 교회 내부지향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간과 되었다. 또한, 한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과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이 결핍되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능(마 5:13-16)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지상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며 사명이다.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제 1 절 교회의 본질에 의해 세워진 건강한 교회

릭 워렌은 규칙과 규정 그리고 의식에 얽매이는 전통, 목회자나 힘 있는 인물, 재정, 프로그램, 건물, 행사 그리고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¹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 요소들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건강함이 ‘규모와 교인수’라는 생각에 지배를 당해 왔다. 땅, 건물, 프로그램, 전문성, 효율성과 편의성, 수적인 성장과 사역의 확장이라는 범주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성경적 세계관

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2006), 25.

10) Ibid., 93-98.

과 세속적 세계관의 교차로에 한국교회들이 서 있다.¹¹⁾

본 연구자는 교회의 본질에 의해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지 E. 래드(George E. Lad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승리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나서는 절대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¹²⁾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도래에 관한 예수님의 언설들과 비유들이 많이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도래를 강조하고 있다(마 8:11-12; 눅 13:28-29). 비유로는 불의한 청지기(눅 16: 1-8),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마 25:1-3), 달란트와 므나(마 25: 14-30; 눅 19:11-27)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설령 극치의 순간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천국과 메시아의 현재성이 천명되었다”¹³⁾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을 정복하셨다.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11) 최형근, “본질에 충실한 작고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2014년도 1월호, 54.

12) George Eedon Ladd,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40.

13)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12), 161.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도래에 관한 예수님의 언설도 언급하고 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언설을 기록했다(막 1:15).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임했다. 현재적 도래의 선언을 한 것이다. 또한 마테와 누가는 침노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다(마 11:12; 눅 16:16). 여기서 언급한 구절을 “천국은 권능 있게(세상 속으로) 뚫고 나아가고 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¹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지향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한다.¹⁵⁾

하지만 본 연구자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서 보장 되었기에 주어진 현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인 ‘땅’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야 한다. 지극히 세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릭 루소와 에릭 스완슨(Rick Rusaw, Eric Swanson)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는 관계의 끝을 형성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기회를 얻는다”¹⁶⁾고 말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거룩한 땅으로의 성육신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곳, 즉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병자들에게 다가가셨다(마 4:23-25).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구현과 그 방식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위임되었다.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들이 물러가며 많은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역은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신도

14) G. R. Beasley 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65.

15) Haword A. Snyder,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철민, 이승학 역 (서울: 두란노, 1999), 40.

16) Rick Rusaw, Eric Swanson,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7.

의 수가 삼천 명이나 늘어난다(행 2:41).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행 2: 42-47). 이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1-3차 전도여행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나라의 구현을 성전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성도 개개인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적절한 섬김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 꾸밈없고 열정적인 섬김을 해야 함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그러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위대한 복음을 신뢰할 수 있고, 성도와 복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단어가 친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그 어떤 곳에서도 소속될 수 없는 ‘소속감의 부재’가 하나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철저히 붕괴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이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즉 공동체로서 존재한다(창 1:26-28).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공동체, 즉 교회이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구만큼 그 구성원의 위업, 가치 그리고 특권을 강조하는 표현은 없다”¹⁷⁾고 말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독과 소외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멸될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며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17)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1), 103.

다(창 12:1-2).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어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출 6:6-7)고 선언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핵심적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다(출 19:5-6; 레 26:12; 겔 37:27). “구약의 총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연합된 언약의 교중이다.”¹⁸⁾

하지만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파기될 위기에 처한다(호 1:9-10).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나라를 갈라놓으신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포로로 잡혀서 동방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 대한 회복과 갱신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사 40:10-11; 렘 31:33-34; 겔 36:25-28).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한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죄인 됨을 고집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부여 하신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지고(행 15:4).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태무는 “백성은 동일하게 형제, 성도, 제자, 택자로 차별 없이 불려진다. 은사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백성들 간의 구별을 의도하지는 않는다”¹⁹⁾고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평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따라서 신앙과 복종, 사랑의 헌신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던 한스 쿡(Hans Küng)의 주장은 옳다.²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됨의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완성되고 확대된다. 제

18) 유태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548.

19) Ibid., 549.

20) 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1), 169.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행 1:14; 2:1-4).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충만케 되고(행 2:1-4),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교회가 된다(행 2:14-42). 성경에 의하면 새 언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른다.

회심한 바울은 구약적 개념을 도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고후 6:16-18).” 바울의 요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적인 삶(마 28:19-20)을 사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생존하시는 분(the One)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²¹⁾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관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속적인 삶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공동체에게 우선 되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신앙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된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본다.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13).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재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 왔다. 건물을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해 왔다. 이와 같은 그릇된 신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큰 오류를 범하게 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성도의 헌신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닌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것일 때 영적 타락과 함께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²²⁾ 또한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한다.

21)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113.

22) 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16.

교회 건물을 주님의 집(the Lord's house)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에서는 교회란 곧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엡 2:1; 딤후전 3:15; 히 10:21).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건물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장소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거룩한 장소를 갖고 있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을 소유하고 있다.²³⁾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명확히 정의 내린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엡 1:22; 5:23; 골 1:18). 몸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고 말한다. 예수님이 씨늘한 건물의 머리일 수는 없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한 몸, 즉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한스 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조건으로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께 복종해야 함을 말한다.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²⁴⁾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3-14)고 표현하고 있다. 건강한 몸은 반드시 성장한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전 1:10 이하; 11:18). 이것을 “신적 성장력”²⁵⁾이라고 부른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는 지체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는 은사를 따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전 16:16). 머리이신 주님은 한 몸인 교회의 은사와 직분이라는 다양성을 통

23)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71.

24) Küng, *교회*, 338.

25) 유해무, *개혁교회학*, 551. 신적 성장력이란 그리스도는 당신을 교회에게 내어 주셔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일하신다. 예수께서 일하신 공생에 3년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일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병들면 주님의 몸이 병드는 것과 같다. 그러한 점에서 목회란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²⁶⁾ 우리가 서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상호관계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상호관계성은 은사와 직분이 차별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속해 있다. 그것들은 함께 섬김으로써 서로 속해 있다. 그것들은 실로 조건 없는 상호 인정과 연대 속에서 인지된다. 그러나 그러한 연대성은 구분 없는 획일성이나 계급적 억압을 일으키지 않는다. 바울은 곧 바로 은사들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리고 그가 그 주제를 다루는 열정은 공동체 안에 특별한 은사, 즉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한 주장에 반해 바울은 은사들의 동등한 다양성을 확고히 주장한다.²⁷⁾

이 조건 없는 상호 인정과 연대로서의 상호적 관계성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견고해진다. 홀스트 필만(Horst G. Pohmann)은 “교회의 일치성은 이미 신약성서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전 3:1 이하; 12:12이하; 엡 4:1 이하)고 말하면서 디다케(IX, 4)를 인용해 성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이 빵이 산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로 뭉쳐지듯이,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의 나라 안으로 모아집니다.”²⁸⁾

성찬을 통해 땅 끝에서 부름 받은 모든 성도는 은사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언급한 하나 됨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5-28).

26)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8-29.

27) Wolfgang Huber, *교회*, 이신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73-74.

28) Horst G. Pohmann, *교의학*, 이신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380.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모두가 몸 의식 즉, ‘몸은 머리를 따라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야한다’는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인정할 때 그의 몸인 성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순복해야 하고, 은사를 따라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교회는 건강해 진다.

4.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곁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민 5:4; 35:34; 출 25:8; 29:45; 사 8:18; 숙 8:3). 하지만 백성들 내면에 영원히 거주 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내면에 머물기를 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다. 교회가 당신의 처소가 된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기본 개념은 고린도 전서에 근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다. 한스 쿡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있다. 교회는 성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영이 채워져 있고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이요 건물이다.”²⁹⁾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는 영적인 피조물이다(고전 6:19; 고후 6:16; 엡 2:17-22; 뱀전 2:4-7).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 성령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사역하게 하신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행 2:14-36).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찢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세례를 받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삼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행 2:37-41). 성령은 수적인 성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수적인 성장에만 제한되지 않고 성숙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인격적의 변화를 일으키며 성장한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할 때 다음의 말씀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29)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9), 95.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또한 성령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고전 12:11), 주어진 은사가 각기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독점할 수 없다. 또한 그 어떠한 은사도 다른 이를 지배하거나 지위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전 14:12). 이러한 점에서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성령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질서 있게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충성 또한 요구된다. 목회자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조가 아니라 평신도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본 연구자의 관심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루시는 주된 사역, 즉 우리 안에서 성숙된 신앙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을 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다(갈 5:22-23). 이 모든 것은 성품의 변화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채워짐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2 절 건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

성경에는 다양한 명령과 사명이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로서 두 가지로 집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사랑의 이중 계명 실천’(마 22:37-40)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마 28:18-20)이다.³⁰⁾ 이 두 가지를 예배당 안에서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본 절에서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사랑의 이중 계명’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30)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18.

1. 사랑의 이중 계명 실천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하신 내용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개의 임무로 압축된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전 구약을 요약한 것이며 동시에 신약의 내용이기도 하다.³¹⁾

가. 하나님 사랑: 예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신앙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행위이다.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성경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약에서의 예배의 개념은 “아바드(봉사 또는 섬김)”와 “샤하야(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앞드리는 것)”라는 어휘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³²⁾ 신약에서의 예배의 개념은 “프로스퀴네오(절하다, 굽어 앞드리다, 입 맞추다)”와 “레이투르기아(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어휘를 사용하는데 이는 종으로서 자신이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³³⁾

최승근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일하심, 사랑하심, 선택하심,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섬김”³⁴⁾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자는 최승근의 견해와 같이 한다. 예배란 단순히 주종 관계에서만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 선택하심, 회복시키심이 곧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화이다.

31)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19.

3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8), 7.

33) Ibid., 8.

34) 최승근, *예배* (서울, 두란노, 2015), 33.

릭 위렌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표현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신다. 시편 34편 3절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한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³⁵⁾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 주일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에 대해서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세 가지 측면들을 제시한다. “회중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중의 응답 등을 포괄한다”³⁶⁾고 말한다.

첫째, 회중의 준비는 교회가 공중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배 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침묵의 준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어 놓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행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행위로서의 기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해야 한다.³⁷⁾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다수의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없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된 것이다. 예배 자는 반드시 공동체가 정한 시간보다 먼저 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다. 설교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 속에서 실현하도록 돕는다.³⁸⁾ 성경과 설교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고백으로 들어야 한다. 설교를 들을 때 회중이 ‘아멘’

35)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0-121.

36)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143.

37) Ibid., 144-147.

38)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66.

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랑 고백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창출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회중의 응답이다. 말씀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신앙고백,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게 대해 유물이 있는 찬양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사랑의 대상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삼을 수 있다(마 6:24).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고백으로써의 예배는 주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일예배를 통해 드러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더 나아가 일상 가운데 드러지는 삶의 예배 즉 일상에배³⁹⁾로 확장되어야 한다(롬 12:1-2).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월-토)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상호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나. 이웃사랑: 사역

릭 워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목적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역(Ministry)’라고 말한다.⁴⁰⁾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 사역이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필요, 즉 영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막 10:45)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

39) ‘일상’의 사전적 의미는 매일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상에배’라 함은 매일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들(노동을 예배로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0)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1.

다.

이 섬김의 사역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3-47).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역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부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다. 모든 인적, 재정적 자원을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⁴¹⁾ 성도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목격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두실 때마다 우리가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⁴²⁾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교회와 세상에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엡 4:12)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이다. 이것이 사역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2. 예수님의 지상 명령 실천

마태복음 28장 18절-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41) Rusaw, & Swanson,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21-22.

42)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2003), 338.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요구를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른다. 이 명령에 나타난 ‘가서’는 현재분사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가면서’로 읽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려 한다. 세 가지 원리란 첫째는 양육, 둘째는 교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가. 전도(선교)

건강한 교회의 조건 중 하나는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전도(evangelism)’라고 부른다.⁴³⁾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복음서에 네 번(마 28:18-20; 막 16:15; 눅 24:47; 요 20:21)과 사도행전에 한 번(행 1:8) 언급하고 있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는 전도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으며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⁴⁴⁾라고 정의 내렸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수를 늘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제자 되는 길을 걷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다.

전도를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에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회복에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찾아온 고통의 문제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진다. 이사야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43)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1.

44)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2012), 135.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둘째, 전도는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김연택은 “전도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전도하면서 전도자 자신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 받게 된다”⁴⁵⁾고 말한다. 전도는 개인의 신앙과 영성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개발된다. 이처럼 전도는 건강한 교회됨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나. 교제

“세례를 주라”는 이 명령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제(fellowship)’이다. 릭 워렌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지 ‘믿을’ 뿐 아니라 ‘소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독한 영웅의 삶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에 속해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세례는 구원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교제의 상징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입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공포하는 것이다.⁴⁶⁾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된다(엡 2:19). 교회는 믿

45)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257.

46)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3.

는 자들에게 교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제의 의미를 언급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사항을 잡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참된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한다. 권문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자유로운 존재이고 독자적 의식을 가지면서 상호 동등하고 상호 존중, 상호 의존, 상호 신뢰하는 분이다. 특히 삼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보여주고 수용하며 지지하고 협력하는 삶을 사신다”⁴⁷⁾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공동체적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 격려 그리고 의지하는 삶”⁴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참된 교제를 할 때 우선순위를 인간적인 교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교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0-23).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말해 주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 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따라 오는 것이 참된 교제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참된 교제는 수평적인 교제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둘째, 참된 교제는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로버트 웨버는 “성찬을 묘사하는데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신약 어휘는 기억, 친교 및 제사이다”⁴⁹⁾라고 정의했다. 그 중에서 성찬의 친교적 의미에 대해 바울은 분쟁에 의하여 갈라진 고린도교회의 맥락

47)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서울: 킹덤 북스, 2013), 245.

48) Ibid., 247.

49)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163.

에서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 성경적 친교란 한 몸 의식을 가질 때에만 성립되는 영적인 문제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의 교제를 동시에 가능케 한다. 바울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참된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성찬이다.

셋째, 참된 교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가 아닌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계획되었다.⁵⁰⁾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제를 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이처럼 건강한 교회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 공동체 안으로 소속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에 있다.

다. 제자훈련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제자훈련(discipleship)’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교육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인으로 삼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제자 삼으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행하셨던 것은 제자를 선발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인가? 옥한흠은 제자라는 개념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동안 그의 말씀과 삶의 모범을 가지고 보여주신 ‘인격적 위탁자’, ‘증인’, ‘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인격적 위탁이 안 되는 사람을 절대로 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⁵¹⁾

50)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33.

5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9), 140-141.

또한, 웨이론 B. 모어(Waylon B. Moore)는 ‘제자’를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겨 쓰시던 말로, 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테데스’인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69번이나 쓰여 졌으며, 그 뜻은 “가르침 받은” 또는 “훈련된” 사람이란 의미로 말하고 있다.⁵²⁾ 제자란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면서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 명령을 땅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수행한다. 교회로서 성도는 단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는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일은 교회가 지녀야 하는 책임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제자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52) Waylon B. Moore, *제자 배가의 원리*, 네비게이토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3), 21.

제 3 장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살펴 볼 것이며, 이어서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후, 소그룹의 장애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소그룹의 필요성

이성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PANTS 신드롬'이라고 한다. 신세대는 다음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이다(Personal). 상의할 대상이 없으므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화가 나도 혼자 해결하고, 기뻐도 혼자 기뻐하며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다. 이런 양상은 그들의 삶을 개인화 되게 했다. 둘째, 흥미 본위이다. 건전한 인격과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공 지향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인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흥미위주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셋째, 자연스러움을 좋아한다.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어떠한 제도도 거부한다. 다른 사람의 눈보다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에받지 않으려 한다. 넷째, 신세대는 성별 구분이 모호하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성개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진 같은 인간이라는 사고가 지배하면서 뚜렷한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다섯째,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고 감행한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자기사랑이다.⁵³⁾

위에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특징들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줄리 골만(Julie A. Gorman)은 '개인주의'를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53)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92-96.

지적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크게 병든 것이다”⁵⁴⁾라고 말했다. 개인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만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그의 생명의 충만함을 나눈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⁵⁵⁾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대부분의 만남이 대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삶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에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나 성도의 가정에 처한 위기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 결과, 공동체성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폴 스티븐슨(R. Paul Stevens)은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무력감, 허무를 느끼고 있으며, 따뜻하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그리워한다는 점이다. 사회 구조는 나날이 규모를 더해가고, 과학 기술은 초를 다투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인간은 더욱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⁵⁶⁾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깊은 고독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소그룹 모임이 안정된 소속감을 주는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⁵⁷⁾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안정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첫째, 자기 노출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알리고, 둘째, 성도들 상호간의 돌봄을 통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셋째, 서로의 섬김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넷째, 진실이 있는 권면을 서로 주고받으며, 다섯째, 서로를 축복함으로 격려하며 성경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다.⁵⁸⁾

소그룹은 단순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만이 아니다. 소그룹은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으며(마 10:1-4)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 방법이었다(행 2:42-47). 하나님은 교회의 소그룹목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가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교회의 체계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54) Julie A. Gorman, *Community That is Christian: A Handbook on Small Group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57-77.

55) Bill Donahue, & Russ Ri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2.

56)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58.

57) Ibid., 58.

58) Donahue, & Ri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87-111.

놓였다. 대그룹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의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 상호간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 가야한다. 더 나아가서 소그룹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과 친밀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그들의 삶에 보다 지혜롭게 침투할 수 있는 방식, 그들과 쉽게 친밀한 인간관계로 접촉할 수 있는 소그룹 교회의 활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대그룹 중심의 전통적 교회가 지닌 결핍을 소그룹 중심의 구조로 변혁함으로써 성경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의 본질에 의해 세워진 건강한 교회와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주장이다.

제 2 절 소그룹에 대한 이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지 소그룹에 관계하며 살아간다. 가정, 직장, 동호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과 연계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모임들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와 같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한다. 또한 영적인 성숙을 형성하는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어 진다. 본 절에서는 소그룹의 정의와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어떤 정의들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룹이란 상호적으로 책임을 갖는 개인들의 집합을 일컫는 말이다. 말콤 놀리스와 홀다 놀리스(Malcolm S. & Hulda Knowles)는 소그룹을 “두 사람 이상의 모임으로써 그룹 의식과 공동의 목적의식, 그리고 상호 의존과 작용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⁵⁹⁾으로 정의한다. 소그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

59) Malcolm S. and, Hulda Knowles, *그룹 다이내믹스* 입문, 이수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

려면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위해 상호책임성을 갖는 동시에 반드시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야 한다.

닐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소그룹을 “교회 내에서의 소그룹이란, 3-12명까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을 말한다”⁶⁰⁾고 정의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의미이다.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그의 책,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에서 소그룹에 대해서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⁶¹⁾으로 정의 한다.

소그룹에 대한 본 연구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 받은 2-13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자발적으로 만나서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 닮아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랑의 이중 계명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 즉, 신앙이 이론과 개인의 구원받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2. 소그룹 유형과 평가

사람은 한 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에 속해서 살아간다.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소그룹에 속하게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가정구역 소그룹, 제자훈련 소그룹, 전도 양육 소그룹, 치유회복 소그룹 그리고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 등으로 구분된다. 이 네 가지 소그룹 유형을 살펴보고 각 소그룹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 가정구역 소그룹

가정구역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델이다(행 2:46).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는 가정에서 모이

육협회, 1982), 39-40.

60)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트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2002), 28.

61)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편집부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3), 13.

는 소그룹에 관한 다양하고 명백한 근거들이 기록되어 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고(롬 16:5; 고전 1:16; 11:34; 14:35; 16:19),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몬 1:2). 골로새서를 보면 늬바의 집에 있는 소그룹 교회(골 4:15)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디모테 전서를 보면 디모테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딤후전 3:4; 12; 5:4)고 기록하고 있다.

이 모델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예배 모델과 유사하다. 유교 문화권의 한국 생활에서 조용기는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예배에서 적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소그룹의 성격은 가르침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미국에서는 포틀랜드에 있는 새 소망 교회의 담임목회자인 데일 갤러웨이(Dale Galloway) 목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 오늘날 새 소망 교회는 800개의 이상의 소그룹이 활발하게 모이고 있다.⁶²⁾

이 소그룹의 장점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영혼구원에 목표를 둬서 구역 배가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가정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교인들 40퍼센트 참여), 목회자 의존적이기 소그룹 인도자의 은사가 묻힐 수 있으며, 소그룹의 인도자의 리더십의 공백이 왔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 제자훈련 소그룹

제자훈련을 위한 소그룹은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소그룹이다. 이 소그룹 유형은 단순히 성경공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데이비드 왓슨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며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겸손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다”⁶³⁾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소그룹의 성경적인 기초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

62)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9), 147-148.

63) David Watson, *제자훈련*, 권성수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3-20.

자를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훈련을 했다. 그러나 집에서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것을 친히 실천해 보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자들이 배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마 10:2-15, 막 6:7-13, 눅 9:1-6).

제자훈련 소그룹의 전형적인 모델로는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이다. 옥한흠 목사가 말하는 제자훈련의 핵심가치는 재생과 같은 기능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잠들어있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를 생산하는 일에 소그룹의 목표들 둔다(골 1:28).⁶⁴⁾ 이것은 명성훈이 제시한 제자훈련 소그룹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말하기를 “제자 훈련 소그룹에서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적용을 위해 신앙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한다”⁶⁵⁾고 말한다.

이와 같은 소그룹의 장점은 제자훈련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이 소그룹은 아주 헌신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없다는데 있다.

다. 전도양육 소그룹

전도 양육 소그룹은 전도 되어진 사람을 양육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소그룹이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 양육을 위한 소그룹 유형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전도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신 후 다시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6장 7-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한 소그룹으로서의 파송이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자주

64)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200-203.

65)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원리와 전략*, 65.

장사 루디아를 전도하여 양육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행 16:14-15). 결국,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아 성장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양육 소그룹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전도 양육 소그룹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제자들교회’가 있다. 제자들교회의 전도소그룹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단계는 고유한 목표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전도소그룹을 통한 전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도를 위한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도하는 단계다.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2단계는 일대일 관계를 세운다. 전도 대상자 중 1-2명을 만나서 관계를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하는데, 전도대상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3단계는 전체 소그룹에서 함께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성도와 함께 만나서 섬기는 단계이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4단계는 초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동안 관계를 세웠던 전도대상자들을 소그룹 모임에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열린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목장초청잔치’의 단계이다. 목장초청잔치를 위해 장식, 식사, 노래, 간증, 목자의 축복기도를 준비해서 섬김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둔다.⁶⁶⁾

전도양육을 위한 소그룹의 장점은 가장 가까운 전도 대상자들을 개인적 섬김을 통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동시에 그 대상을 소그룹 안에서 함께 전도하는 효율성 또한 지닌다. 하지만 소그룹의 방향이 지나치게 영혼구원을 강조하기에 기존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66)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14-23.

라. 셀 소그룹⁶⁷⁾

셀 소그룹은 칼 조지(Carl George)에 의해 개발된 메타 모델과 연관이 있다. 메타 모델이란 소그룹 안에서 돌봄의 범위를 1:10의 비율로 표현하고, 예비 지도자 제도를 통한 리더십 개발, 빈의자⁶⁸⁾와 탄생의 기법을 사용한 재생산 그리고 세심한 목양을 통한 성숙에 초점을 두고 있다.⁶⁹⁾

이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모세와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다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도록 조언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출 18:13-26). 셀 소그룹은 교인 전체를 셀 단위로 임의 재편성하여 교인 전체를 보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셀 소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대표적인 교회는 로렌스 쑹 박사(Lawrence Khong)가 담임하는 싱가포르의 FCBC(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연합 셀을 운용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 장년과 어린이를 분리하여 소그룹을 운용한다.

이 모델은 가정구역 소그룹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그룹에서는 주일에 설교에 기초한 성경본문을 공부하려하지 않고, 보조리더를 훈련시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그 초점을 보살핌에 둔다. 특히, 셀 소그룹의 목표는 번식과 성장에 있다. 이 모임에서는 ‘빈자리’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룹이 10명-12명으로 성장하면 보조리더가 한 두 사람을 데리고 분가하여 셀을 형성한다.

셀 소그룹의 장점은 소그룹 상호간의 협력구조를 통한 번식과 성장에 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교인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지도체제가 관료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번성하지 않는 소그룹은 임의적으로 재구성과 재배열을 함으로 그룹의 생명 주기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 통합적 기능 소그룹

본 연구자는 통합적 기능의 소그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합적 기능 소그룹은 평신도 리더와 평신도 6-12명이 가정에 매주 모여서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교

67) 체이석, *소그룹의 역사*, 155-157.

68) 빈 의자란 소그룹이 앞으로 전도 되어질 대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69) Bill Donahue, *월로크릭 소그룹 리더십 컨퍼런스: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월로크릭코리아 역 (서울: 월로크릭코리아, 2003), 6.

제, 그리고 제자 훈련의 직능을 다하는 소그룹이다. 이 소그룹은 사도행전 2장 42-47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 가정에서 모인다는 점이 가정구역 소그룹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이 소그룹은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이 본 논문 제 2장에서 언급한 사랑의 이중 계명(예배와 사역)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전도와 선교, 교제, 제자훈련)의 실천을 통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소그룹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유형의 소그룹을 활성화한 교회로 휴스턴 서울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최영기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교회 그자체로 삼았다. 주일에 모이는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참된 사귀기가 어렵고,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다.⁷⁰⁾

가정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교제를 함으로써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고려해볼 때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에 용이하다. 대그룹으로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가정으로 초대를 했을 때 그 공간의 익숙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쉽게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민족 선교사역에 동참한다.⁷¹⁾

이 소그룹의 장점은 담임목회자와 위임을 받은 소그룹 리더들의 목양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소그룹에 소속된 성도 전원이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교제 그리고 제자훈련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직능⁷²⁾을 담당하면서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소그룹 인도자가 탈진했을 경우 소그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3.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폴 스티븐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평신도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70)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12), 26-30.

71) 통합적 소그룹에서는 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기도후원, 물질 후원, 단기간 봉사를 통해 선교사역에 동참한다.

72) 다양한 직능이라 함은 소그룹 안에 소그룹 리더, 예비리더, 찬양담당, 세 가족 담당, 천교 담당, 선교담당 등을 말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의 직능을 담당한다.

소그룹 사역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평신도 지도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⁷³⁾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평신도 리더들이 모든 교회에 가득할 때 한국교회는 내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⁷⁴⁾라고 말한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옴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변화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다”⁷⁵⁾고 말한다.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백성 삼는 것이다. 둘째, 천국백성답게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3-15).

신앙생활이란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숙해 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변화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제반 사역들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예수님의 성취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디자인 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도들 모두가 소그룹 안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예배와 사역)’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전도와 선교, 교제, 제자훈련)’을 실천하는 것을 소그룹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다면 변화와 성숙을 가져 올 것이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초대교회가 이를 증명한다.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

73)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53.

74) Ibid., 53.

75)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24.

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행 2:42).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다(행 2:44-45). 삶의 변화였다.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 내는 환경이 바로 소그룹의 역할이다.

나. 배운 것을 실천하는 제자 훈련의 장이 됨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소그룹이 있다. ‘말씀 중심’ 그룹과 ‘교제 중심’ 그룹이다. 말씀 중심 그룹은 지식 위주이며,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주를 이룬다. 교제 중심 그룹은 경험 위주이며, 감정에 대한 응답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두 소그룹은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 즉 행동하는 신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변화 중심의 소그룹’을 제시할 수 있다.⁷⁶⁾

변화중심의 소그룹이란 소그룹 안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와 선교적 삶을 통해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소그룹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이끄는 소그룹은 말씀과 교제 중심의 소그룹이면서 동시에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소그룹이었다.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소그룹 안에서의 제자훈련을 경험하면서 삶의 방향성과 삶이 바뀌게 된 것이다. 소그룹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성도들 간에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곳임과 동시에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제자 훈련의 장소이다.

다. 관계회복이 이루어짐

대그룹 중심의 교회의 가장 큰 상실은 성도들 상호간에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과 관심과 돌봄의 필요성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무관심이라는 상처를 주었다는데 있다. 랄프 네이버(Ralph W. Peterson)는 교회를 다니거나 중단한 사람들은 진정한 인

76) Donahue, &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14-119.

격의 교류가 없는 교회에 대해 분개하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⁷⁷⁾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삶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성도 간에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는 시도를 한다(행 9:26).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거부한다. 이유는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함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다니게 된다(행 9:27-28). 소그룹을 통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내적인 치유를 통해 가족, 성도 상호간에 치유를 통한 관계 회복의 장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힘없이 죽으셨다는 실망감으로 디베랴 호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모으신다. 소그룹의 회복을 주도하신다. 이 때 서로에게 있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관계가 회복된다(요 21:1-14). 예수님은 소그룹을 통해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아래 있는 가족과 그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소그룹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그룹에서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동료그룹들에 의해 자신들이 사랑받고 용납되며 또한 지지 받는 상황을 제공받게 된다.⁷⁸⁾ 이와 같이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현대사회의 메말라 가는 인간관계의 상실을 회복하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다.

라. 효과적인 전도와 정착률이 높아짐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전도다. 전도에 있어서 대그룹 중심의 교회가 갖는 단점 중에 하나가 전도되어 교회로 온 성도들의 정착률이 저하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에 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인은 대그룹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히 노방전도, 가호방문 전도, 전도축제와 같은 형태의 전도 방식 보다는 소그룹을 통한 관계 중심적인 전도가 정착률을 높이는 데

77) Ralph W. Peterson,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디모데, 1999), 130.

78)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35.

더욱 효과적이다.

전도에 대해 정진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룹으로,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도를 해 가야 할 것이다”⁷⁹⁾라고 말했다. 소그룹을 통한 관계중심적인 전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의 90퍼센트 이상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듯이, 본 연구자가 사역의 현장에 경험한 것과는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안정된 만남을 자주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 대그룹으로 오기 전에 소그룹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그만큼 정착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제 3 절 소그룹 사역 활성화의 장애 요소

한국교회는 소그룹으로 시작되었다. ‘구역’은 한국 교회의 소그룹 조직을 대표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소그룹을 조직만 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소그룹 사역이 한국교회에 정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 절에서는 소그룹 사역 활성화의 장애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그룹 중심의 목회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은 대그룹 집회로 모이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새벽기도를 포함해서,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예배로 일주일에 12회 이상이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집회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전교인이 모이는 집회의 출석인원이 곧 그 교회 목회자의 목회적 역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중 집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 헌법에는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일기도회 참여를 교인의무”⁸⁰⁾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교단의 헌법에

79)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폭발한다*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30.

80) 대한예수교 고신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264.

도 대그룹 집회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어도 소그룹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아래 소그룹은 대그룹 모임을 위한 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개념이 대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주일예배가 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그 결과, 자주 모여야 하는 대중 집회는 상대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약화되었다. 갈수록 바쁘게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교인들이 모든 대중 집회에 참석하고 또 다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은 대중 집회를 위한 인원 동원의 조직 정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2. 교회의 제도화

소그룹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기성에 있다. 볼프강 짐손(Wolfgang Sim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신과 삶과 자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불신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 유기성이 나타난다.⁸¹⁾

특별히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은사의 유기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한 세기를 지나면서 교회의 유기적인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제도적인 면을 발전시켜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회제도이다.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도는 우리사회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교회의 성장의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부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인 조직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약화되었다. 특별히 소그룹 사역뿐만이 아니라 대그룹 사역에도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김동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회가 전 교인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모든 일에 전권을 가진 특권그룹이 되어 목회의

81) 대한예수교 고신총회, *헌법*, 141.

대소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⁸²⁾

이처럼 제도화된 당회나 조직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이런 풍토 속에서 목회자가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집중할 수 없으며, 목회자가 원한다고 해도 당회원들을 설득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됨으로 유기적인 소그룹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3. 평신도 리더 교육 및 훈련의 부재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악 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하나님은 초월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신다. 일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능력⁸³⁾이며 세상적 리더십에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로버트 클린턴(Robert Clinton)은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한 집단에서 그분의 능력을 입은 인물들이 행사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⁸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다. 리더는 훈련을 통해 나온다. 모세는 40년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훈련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 받았다. 리더는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와 같이 리더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리더 교육과 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식적인 교육에는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들이 배운 것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치는 소그룹 원들에게 격려와 지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나라에 얼마나

82) 김동호, “당회가 변해야 주일학교가 산다,” *빛과 소금*, 1996년 제 134호, 42, “당회운영, 이대로 좋은가?,” *목회와 신학*, 1999년 10월호, 154.

83)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10), 148.

84) Ibid., 148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⁸⁵⁾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 리더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부흥과 수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리더십을 양성해 왔기에 소그룹을 인도할 진정한 평신도 리더들을 양성하는데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4. 통합적 기능을 가진 소그룹의 부재

건강한 소그룹은 통합적 기능을 가진 소그룹이어야 한다. 통합적 구조를 가진 소그룹이란 예배, 사역, 교제, 제자훈련, 그리고 전도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소그룹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통적 교회가 갖고 있는 소그룹의 구조는 전도 중심의 소그룹, 기도 중심의 소그룹, 제자훈련 중심의 소그룹과 같은 단일 목적을 가진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의 소그룹은 특성화 있게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이중 계명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일에는 한계성이 있다.

85)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263-264.

제 4 장

부천의성교회의 목회 환경과 역사와 비전

앞 장에서는 소그룹의 정의와 소그룹의 유형,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부천의성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목회 상황과 함께 의성교회의 역사와 소그룹 사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의성교회 목회 환경

본 절에서는 부천시 중심지에 위치한 의성교회 주변의 지역적 환경, 경제 및 교육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조사한 후, 목회적 환경이 소그룹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지역적 환경

가. 부천지역 구분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부천은 크게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세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원미구는 초창기 신도시 지역 중 하나로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로 지역 발전을 꾀하여 왔다. 공장지대가 대부분인 오정구와 일반 서민 주거지역인 소사구는 주택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천시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사구는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오정구의 공업지역은 테크노 벨리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구축했다. 원미구 중 2동에 위치한 의성교회는 수도권으로 연결된 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다.

나. 가구 현황

부천시내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상 가구원은 2,212명이며, 가구당 만 18세 이상 가구원은 평균 2.2명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가구현황을 알기 위해서 <표 1>를 작성하였다.

<표 1> 권역별 현황 및 가구특성(단위: 명)⁸⁶⁾

	가구주	가구원수	만 18세 이상 가구원수 (평균)	가구주 비율(퍼센트)		가구주 평균연령 (세)
				남성	여성	
전체	1,000	2,212	2.2	81.4	18.6	54.1
도당권역	94	182	1.94	80.9	19.1	54.8
원종권역	184	414	2.23	77.2	22.8	53.5
중동권역	141	315	2.23	80.1	19.9	57.0
상동권역	91	204	2.24	93.4	6.6	51.4
송내권역	124	256	2.06	87.1	12.9	52.3
심곡권역	163	365	2.24	86.5	13.5	53.0
소사권역	74	186	2.51	70.3	29.7	56.4
역곡권역	129	290	2.25	75.2	24.8	55.4

2014년 부천시 경제지표 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가구의 가구주는 남성이 81.4 퍼센트, 여성이 18.6 퍼센트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4세였다. 가구 특성은 2013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권역 별로는 소사권역, 역곡권역, 원종권역 등에서 여성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부천 거주에 대한 인식 및 이사계획⁸⁷⁾

조사의 의하면, 본인 대부터 부천에 거주한 비율 및 거주 기간은 2012년 92.4퍼센트, 2013년 95.1퍼센트, 그리고 2014년에는 88.8퍼센트로 다소 감소되었다. 부천 거주 기간은 2012년 16.8년, 2013년 17.3년, 그리고 2014년 18.3년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중동권역과 상동권역 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본인 대에서부터 거주

86)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요약보고서 (부천: 부천상공회의소, 2015), 27.

87) Ibid., 22-23.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계획은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 비율이 28.1퍼센트로 전년 대비 4.6퍼센트 증가했고, 부천 내 이사 희망 비율이 56.2퍼센트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이사 계획이 없는 가구 및 부천 내 이사가구를 합친 부천 정주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상동권역 가구의 49.2퍼센트가 5년 이내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가구의 이사 희망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부천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를 고려하는 이유는 더 넓은 집과 나은 삶의 질을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조건으로 인한 이사가 줄고, 직장, 일거리 문제와 건강, 자연친화 환경 추구에 따른 이사가 늘어나고 있다.

2. 경제 및 교육적 환경⁸⁸⁾

가. 경제적 환경

부천시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은 342만원, 월 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액은 모두 증가했다. 월 평균에 대해서는 권역별로는 상동권역의 평균 소득이 43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동이 포함된 송내권역 역시 42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상동권역과 최하위인 소사권역의 소득 격차는 월 평균 147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소비수준은 201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376만원) 및 50대(393억)에서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부문별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 28.9퍼센트 > 교통비 10.8퍼센트 > 통신비 8.3퍼센트 > 금융비용 6.7퍼센트 등의 순이며 부문별 지출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5.6퍼센트에 6.4퍼센트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타 교육비 역시 증가세로 전반적으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편, 통신비 비중과 금융비용(이자 부담 등)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체 소비 중 식료품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은 도당권역과 역곡권역을 나타냈으며 상동권역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9.1퍼센트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88)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요약보고서, 23-24.

2014년 부채 현황은 <표 2>가 보여주듯이, 부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부채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퍼센트)
전체	2,495만원	2,256만원	3,194만원	100
은행	51	51	149	88.5
개인(사채)	41	37	50	5.1
카드사	41	37	50	3.9
기타	70	39	60	2.5

가구 비율 50.4퍼센트로 2013년에 비해 13.3퍼센트가량 증가하였고,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금액은 3,194만원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채 비중이 88.5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별 평균 부채 금액은 소사구(3,782만원), 송내권역(4,647만원) 및 소사권역(4,614만원) 거주구 연령 40대(3,808만원), 월평균 가구소득 4000만 원 이상(4,829만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나. 교육적 환경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2014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2013년 대비 3만 원가량 감소되었다. 대상 자녀별로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5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사교육비는 42만원 수준으로 중,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대학생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소폭 증가하였다. 특별히 상동권역(72만원)과 중동권역(62만원)에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권역대비 높은 편이다.

3. 문화적 환경⁸⁹⁾

가. 권역별 문화에 대한 만족도

부천시의 문화 환경은 권역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표 3>를 통해 권역별 문

89)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요약보고서, 34-35.

화 환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표 3> 권역별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단위: 점)

	미취학자녀 양육환경	교육환경	주차교통	문화시설	쇼핑시설	방법치안
전체	3.00	2.94	2.75	2.83	3.09	2.86
도당권역	2.92	2.90	2.90	2.78	2.87	2.80
원종권역	2.73	2.66	2.59	2.46	2.59	2.57
중동권역	3.33	3.39	3.10	3.46	3.84	3.25
상동권역	3.26	3.13	3.04	3.59	3.98	2.94
송내권역	3.17	3.06	2.98	3.02	3.33	3.14
심곡권역	2.85	2.75	2.46	2.65	2.96	2.61
소사권역	2.61	2.65	2.07	2.38	2.30	2.36
역곡권역	3.10	3.02	2.82	2.47	2.91	3.12

문화적 환경은 중동과 상동권역이 교육환경, 주차·교통, 문화시설 등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사권역은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별히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위 권역과 최하위 권역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을 나타내며 권역간 불균형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 권역으로는 상동권역이 3.59점이고, 최하위권역으로는 소사권역으로 2.38점을 받았다. 의성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중동권역은 3.46점으로 문화적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 중2동의 문화적 환경

의성교회가 위치한 중2동은 계획적인 신도시로 이루어져 편리한 교통시설과 많은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부천시청, 순천향병원, 중앙공원, 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곳곳의 소규모 공원들인 소향공원, 별막공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부천의 랜드마크인 위브더스테이트와 리첸시아가 있고 주변에 대형 백화점 등의 상업지역이 조화를 이루어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철 1호선과 7

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기,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4. 목회적 전망

의성교회가 위치한 원미구 중 2동은 비교적 부천시에서는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지역적 환경, 경제 및 교육환경, 문화적인 환경이 다른 권역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의성교회가 위치한 곳은 아파트 단지과 주택단지의 중앙에 있다. 5분에서 10분 거리 안에 큰 공원과 작은 공원, 재래시장, 대형 백화점과 마트, 학원들이 있어 다양한 세대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특별히 교회가 시립도서관과 중 2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로 유입되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7호선과 1호선이 교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해마다 이사를 통해 수평이동을 하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라는 점이다. 교회가 2013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교육부서와 가정 회복 사역에 집중 투자한 결과 30대-40초반의 성도들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영아부와 유치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회가 가정회복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외층들을 돕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성도의 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 대부분이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성도들 상호간에 영적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 회복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고 활성화 할 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제 2 절 의성교회의 역사와 비전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부천 의성교회의 간략

한 역사와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 역사와 성장

의성교회는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이다. 현재 약 1,300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는 전통적 교회이다. 본 교회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세대와 세대가 균형 있게 출석하며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점이다. 의성교회의 역사와 성장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개척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성장(1982-1994년)

의성교회의 1대 목회자인 황영석 목사는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시무하였으며, 현재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의성교회는 1982년 1월 30일 부천시 심곡 2동에 있는 건물 30평을 월세로 얻어 당시 황영석 강도사가 개척을 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1982년 목사안수를 받은 황영석 목사는 “오직 기도와 목양 일념”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에 열정을 쏟아놓는다. 그해 교인 14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지속적인 성경공부, 부흥사경회 그리고 총 전도주일을 시작한 결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1985년 12월에는 2층 60평 그리고 지하 40평을 상가를 얻어 이전한다. 이 시기에 교회는 점점 조직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간다. 성가대가 조직되고, 여전도회가 1, 2 여전도회로 나뉘지면서 1988년에 1월 부천시 심곡동 244-13번지에 예배당 대지로 340평을 구입한다. 그러나 그 다음해 부천 도시 계획의 일환인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회 부지를 부천시가 매입하게 된다.

이때부터 황영석 목사는 교회건축을 위해 부천시 중동신도시 종교부지 9번지에서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결과, 부천시 중동신도시 종교부지 251평을 배정 받는다. 이를 기점으로 두 명의 장로(임철환, 이강신 집사)를 임직하고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된다. 또한 교회 건축과 함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회는 25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

나. 선교지향적 교회로의 성장(1995-2004년)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의성교회는 본격적으로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방향을 전

환해 나간다. 1995년 4월 필리핀 까마라 안디옥 원주민 교회당 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청년부 단기선교를 보낸다. 이듬 해 1996년에는 러시아 알파타 한인장로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1997년에는 건축비 전액을 헌금한다. 1997년 9월에는 크즐오르다 교회로 김우섭 강도사를 파송하고, 1999년 8월에는 로마한인교회 증축 헌금을 지원한다. 2001년 3월에는 남아공 칼리처신학교 건축시작하고, 2001년 9월에는 건축의 전액을 지원한다. 2001년 10월에는 몽골 빈민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2002년 배성호 목사를 남아공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처럼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감의 결과는 교인들의 수적인 부흥이었다. 이 때 장년 교인 출석만 1200여명이었다. 10여년 사이에 10배의 수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다. 교회 분열의 시기(2005-2007년)

2006년 8월 제 2대 목사로 강용만 목사가 부임을 하면서 교회는 제 2의 성장기를 맞이한다. 1대 목회자가 기도와 목양 중심의 목회를 했다면 2대 목사는 설교에 탁월성을 드러냈고, 깊이 있는 말씀에 목말라 있던 성도들의 목마름에 부합되어 2007년 15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다. 2006년 12월에 제 1대 황영석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몽골 선교사로 파송된다.

하지만 2007년 10월 서경노회 주관으로 전권위원회가 발동이 되면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한다. 전권위원회가 발동한 이유는 500여명의 성도들과 원로목사가 제 2대 목사인 강용만 목사를 불신임함으로 인해 갈등 구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는 1대 목사인 황영석 목사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성도들이 분립개척(교회명: 예음교회)을 했고, 400여명의 성도들은 타 교회로 이동을 했으며, 500여명의 성도들만 현 의성교회에 남게 되었다.

라. 교회 회복의 시기(2008년-현재)

분열의 아픔을 잘 견딘 강용만 목사는 2008년 7월 위임목사로 임직하면서 분열의 아픔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2009년 3월에는 교회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교회 리모델링을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감사 찬양콘서트를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년 2회 지역주민 300여명을 초청해서 의료봉사, 미용봉사, 식

사 대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2009년 6월에 중국단기 선교를 시작했고, 10월에는 40여명의 중직자를 세워서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했다.

2011년도에는 교회TEE제자 훈련⁹⁰⁾을 통해 성도들 간에 말씀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했고, 그와 함께 가정 사역 회복의 일환으로 마더 와이즈⁹¹⁾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여성회복사역을 도와왔다. 또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의 회복사역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격년제로 국내 단기 선교와 해외단기 선교를 한다. 선교의 내용은 국내와 해외 선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미용, 건축, 교육, 문화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10월 어느 멋진 날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신자 전도를 위한 집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의성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를 가졌다. 현재 청장년 8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 2015년 5월 9일에 제 2대 목사는 은퇴하고 제 3대 담임목사로 본 연구자가 세워져 의성교회를 섬기고 있다.

의성교회의 문제점은 주일에 모이는 대그룹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당회 중심, 소수의 헌신자들, 리더십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리더십의 부재다. 33년의 역사를 분석해 볼 때 제 1대 목회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이끌었고, 제 2대 목회자는 설교 중심의 목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나 제 1대와 제 2대 목회자들의 공통점은 평신도 리더십을 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의 목회 주안점은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을 이끌 평신도 리더십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2. 의성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

가. 목회철학

의성교회의 목회 철학은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을 통해 역사상 교회가 가장

90) TEE는 Theological Educational by Extension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 우리말로는 신학 연장교육 또는 연장신학교육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TEE 교육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변화 받을 수 있게 돕는가?”에 교육철학을 둔 학습 방법이다.

91) 마더 와이즈(Mother Wise)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이다. 젊은 여성들, 중년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공부과정으로는 자유, 지혜, 회복의 과정이 있다.

교회다웠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행 2:43-47).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랑과 섬김의 역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신약시대에 나타난 신앙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의 형태로 행했다⁹²⁾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는 두 가지 한계를 뛰어 넘는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세대와 세대의 단절, 신자와 불신자들와의 단절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여기서 모이는 소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삶을 살기 때문에 회로에락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진솔한 나눔과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곳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그룹이 있는 교회로 나오고,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된다. 또한 다양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간증과 감동이 넘친다. 삶이 변해가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는 것처럼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없다. 초대교회에서 제시하는 소그룹은 늘 간증과 감동이 있었다(행 2:42-47). 이러한 간증과 감동 때문에 소그룹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인도하게 되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해 나간다.

이처럼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이 소그룹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성경적인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서로 섬겨주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실현되게 된다. 결국,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예배, 사역, 제자훈련, 교제, 그리고 전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이다.

나. 목회철학을 이루는 세 가지 기초와 네 가지 기둥

목회철학을 이루는 세 가지 기초는 첫째,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둘째, 주일에 모이는 대그룹 예배, 마지막으로 성경공부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

92)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3), 66.

식, 감정 그리고 의지의 변화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는 이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며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이 모임에 참여한 불신자들은 사랑을 맛보며, 마음을 열고, 또 나눔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며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감과 동시에 복음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세상과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지식의 욕구 채운다. 또한 대그룹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설교를 통해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 해야겠다는 결심을 통해 의지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삶의 기쁨이 회복한다.

복회 철학을 이루는 네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큰 두 계명인 사랑의 이중 계명(마 22:37-40)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마 28:19-20)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교실에서 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길러지는 삶의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다(막 3:14-15).⁹³⁾ 셋째,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목사는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회를 이끌고, 평신도는 복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엡 4:11-12).⁹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개인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면서 타인을 성공시켜 주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마 20:27-28)을 발휘하는 것이다.⁹⁵⁾ 이 네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다. 의성교회의 목회 비전

의성교회는 33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교회다.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은 대그룹 중심의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그룹을 중심으로 예배, 봉사, 제자훈련, 교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 특별히 모든 교회의 정책이 당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헌신보다 수동적인 헌신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자는 2012년 12월 부목사로 부임해서 2015년 5월 담임목사로 부임하기까지 교회를 관찰해 본 결과 의성교회는 봉사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봉사가 있는 교회이고, 제자훈련

93) 천석길, "가정교회," 제 7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집, vol. 1 (2011), 9.

94) Ibid., 9.

95) Ibid., 10.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이다. 또한, 교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제가 있는 교회이며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이다. 예배는 그 어떤 교회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교회이며 봉사, 제자훈련, 교제 그리고 전도는 소수의 헌신자들의 전유물이 된 경향이 있다.

랜디 프레이지(Randy Frazee)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 써야 한다. 신앙공동체 밖에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연합된 몸으로 섬겨야 한다.⁹⁶⁾

본 연구자의 목회 비전은 단순히 소속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유기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성도들 모두가 통합적 기능, 즉 예배, 봉사, 제자훈련,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주체가 되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제 3 절 의성교회 주된 소그룹 현황 및 평가

의성교회는 33년의 역사에 맞게 다양한 소그룹이 존재한다. 소그룹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의성교회의 주된 소그룹 현황과 연구자의 관점으로 각 소그룹을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구역 중심의 소그룹

가. 구역 중심의 소그룹 현황

의성교회의 소그룹은 총 3개의 교구로 나뉘고 그 안에 5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96) Randy Frazee,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여백 만들기*,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CUP, 2009), 43.

져 있다. 1교구와 2교구는 여성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지역마다 장로들이 지역장(총 8명)으로 섬기고 있으며, 각 교구마다 22명의 구역장과 22명의 권찰로 이루어져 있다. 구역원들은 대략 10-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교구는 남성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구장은 연합 남전도회 회장을 맡은 장로가 역할을 감당하고, 10개의 남전도회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역원들은 대략 15명에서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역원들은 각 소그룹 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와 친교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여성 구역 소그룹은 낮에 모이고, 남성 구역 소그룹은 직장 퇴근 후 밤에 모인다. 모임 장소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모이고, 모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찬양을 10분 정도 부르고, 그 후에 구역 강사나 구역원 중 한 사람이 기도한다. 성경말씀을 읽은 후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나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구역 모임이 끝나면 대부분 다과를 나누든지 식사 모임을 갖는다. 특별히 구역 소그룹을 인도하는 구역 강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가르침에 비중을 두지 말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함을 강조한다.

나. 구역 중심의 소그룹 평가

의성교회 구역 중심의 소그룹은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친교 그리고 교인 관리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도를 통한 영혼구원과 해외 선교사들과의 연계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영적 성숙을 위해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구역의 역할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성숙된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며 섬김의 도를 보여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 또한 지역장과 구역장의 연계적인 사역도 결핍되어 있어 유기적인 사역이 어렵다.

이와 같은 구도로 구역 소그룹이 정착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성교회 지역장과 구역장들은 소그룹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 아래서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직분과 신앙의 년 수에 의해 세워졌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중요성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아닌 소그룹이 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2. 양육 중심의 소그룹

가. 양육 중심의 소그룹 현황

의성교회의 양육 중심의 소그룹은 크게 세 가지이다. 새 가족 제자훈련, TEE 공동체 제자훈련, 마더 와이즈이다. 특별히 마더 와이즈는 정확한 의미에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공존하는 양육 소그룹이다. 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새 가족 제자훈련은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양육 소그룹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총 6주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일반과 수요일반 약 120여명의 새 가족들이 수료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정착률 90퍼센트를 자랑한다.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가장 먼저 담임목회자와 만나고, 72시간 안에 심방이 이루어진다. 그와 동시에 구역 배정과 바나바 사역자들이 새 가족을 돕는다. 새 가족 성경공부가 시작되면 6주 과정으로 양육 중심의 소그룹이 운영된다. 모임의 형식은 5분 정도 찬양을 부르고, 삶을 나누고, 강의형태로 40분간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담임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성경공부가 끝나면 담임목회자가 수료자들 전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새 가족들이 담임목회자와 성경공부를 하고,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부분에 가장 큰 감동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공동체 제자훈련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오고 있다. 전통적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 상호간에 참된 교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모임의 형식은 찬양을 부르고,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따라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나눈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

의성교회가 TEE 코리아와 연계해서 시작한 커리큘럼은 풍성한 생명(13주),⁹⁷⁾ 풍성한 빛(10주),⁹⁸⁾ 기도(10주),⁹⁹⁾ 잠언(10주)¹⁰⁰⁾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티 코

97) 풍성한 생명은 총 18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듭남, 죄에서 회개, 믿음과 용서, 순종, 하나님의 가족, 성령 충만, 성경을 읽는 방법, 기도, 사탄을 이기는 법, 옛 본성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전도, 세례, 주의 만찬, 지역교회의 교인,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98) 풍성한 빛은 총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경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리아'에서 인도자 훈련을 받은 7명의 교역자들이 '풍성한 생명' 1기생들을 모집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30명 정도가 수료했다. 그들 중에 15명을 '타 코리아'로 보내서 평신도 인도자 훈련을 받아 인도자로 세웠다. 현재 500여명의 성도들이 TEE 제자훈련과정을 마친 상태이다. 의성교회에서는 현재까지 세 가족반과 풍생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교회 정식회원으로 등록시키고, 타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 한다.

마더 와이즈는 “여성들이 아내로, 어머니로의 부르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¹⁰¹⁾”이다. 마더 와이즈는 성경공부 모임이지만,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결혼생활, 자녀양육,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고귀한 성경적 사명을 여성들이 잘 감당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여성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성경적 지침과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 또한 목표로 두고 있다.

의성교회 마더 와이즈는 2012년 5월 교역자 1명, 부장 1명, 멘토링맘 4명(전체강의와 4개의 소그룹, 유아돌봄교사)으로 시작하였고, 2015년 현재 마더 와이즈 9기까지 진행 되었다(교역자1, 멘토링맘 소그룹 인도자 5명, 유아돌봄교사). 멘토링맘은 마더 와이즈 졸업자 중에서 멘토링맘으로 세워나가면서 교체 및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수별 수료자는 약 32-42명이며, 매 기수 평균통계로 볼 때 타교인이 전체의 25퍼센트, 비신자 5-10퍼센트, 장기결석자 5퍼센트, 미등록교인 5퍼센트 정도 참여한다.

마더 와이즈를 통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효과이다. 전도되어 교회정착 후 교사, 전도팀, 구역원 등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 확장되고 있다. 둘째, 미등록 교인의 교회정착 및 교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장기결석자가 교

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진실성, 성령의 배영과 역사 그리고 율법서(1) 창세기, 율법서(2) 이스라엘과 율법서(3)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역사서(1, 2), 역사서(3)와 시가서, 선지서(1) 정계와 선지자(2) 구원, 신약성경의 배경과 서신서, 빌립보서와 요한계시록이다.”

99) 기도는 총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응답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서 자라가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기도에 대한 응답, 예수님의 기도이다.”

100) 잠언은 총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혜는 삶의 기술, 지혜로운 길을 선택, 지혜를 얻는 것이 축복, 허에 대한 지혜, 재물에 대한 지혜, 성적 욕구에 대한 지혜, 술에 대한 지혜, 개으름 교만 분노 폭력에 대한 지혜, 가정생활에 대한 지혜, 지혜안에서 행하기이다.”

101) 마더 와이즈는 1981년, 드니스 글렌(Denise Glen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회에 다시 출석하며 정착했다. 넷째, 타교회 성도의 참여로 인해 긍정적인 교회이미지를 구축했다. 다섯째, 상담사역으로 인한 회복이 있다. 여섯째, 부서간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는데, 교육부서와의 연계(전도, 숨은 교인 발굴, 교회활동 활성화 등)가 그러하다. 일곱째, 모듬활동(소그룹)을 통한 여성 성도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여성간의 정서적 지탱 및 신앙생활에 대한 열의 고취가 일어난다. 여덟째, 마더 와이즈 참여와 매일의 교재 공부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의 신앙적 갈급함을 해소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도가 마더 와이즈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성도의 모습을 찾아간다.

<표 4> 마더 와이즈 커리큘럼

자유: 어머니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다섯 가지 원리(10주)			
1강	어머니들을 위한 공급원	6강	가지치기의 원리: 잘라버리기
2강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	7강	새싹의 원리: 포도나무 접붙이기
3강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8강	새싹의 원리: 새로운 성장
4강	가지의 원리: 내면의 병적요소	9강	열매의 원리: 성숙을 향하여 익어감
5강	가지치기의 원리: 가지치내기	10강	열매의 원리: 거두어들이기
지혜: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어머니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말씀의 원리(10주)			
1강	지혜의 탐구	6강	남편과 아내의 관계 2
2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	7강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1
3강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 1	8강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2
4강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 2	9강	여성과 세상과의 관계 1
5강	남편과 아내의 관계 1	10강	여성과 세상과의 관계 2
회복: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6주)			
1강	당신을 택하신 주님	4강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2강	당신을 받아들여신 주님	5강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3강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6강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

의성교회 마더 와이즈의 커리큘럼은 자유, 지혜, 회복교재 순서로 진행된다. 마더 와이즈의 커리큘럼은 <표 4>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자유와 지혜가 각 10주, 회복이 6주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더 와이즈는 성경공부를 포함한 약 70분의 강의와 약 60분의 모듬활동으로 진행된다. 모듬활동은 중

보기도(마더 와이즈 룰)와 주제별 토론(나눔)으로 진행되는데, 마더 와이즈만의 기도를 지켜야 한다. 기존의 습관적인 장황한 기도, 기도제목과 상관없는 방대한 기도를 지양한다. 간결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마더 와이즈 나눔 시간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멘토링하는 시간이 된다. 여성 그대로 인정해주며 품어주는 격려의 시간으로써 서로를 지탱함에서 오는 풍요함을 누린다. 자유와 지혜 과정의 경우, 각 과에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토의'가 안내되어 있다. 교재에 실린 주제에 따라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마더링 스킬이나 부모교육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회복의 경우, 5일간 교재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나눈다. 모두의 마지막 시간은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멘토링 해준다. 마더 와이즈는 주 1회 모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 과에서 다루는 개념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일주일동안 다섯 날에 해당하는 과제를 하도록 되어있다. 가정에서 교재를 통해 매일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할 때 마더 와이즈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9기는 마더 와이즈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네 번째 커리큘럼으로 이기복의 *BPS(Biblical Parenting School)* 성경적 부모교실을 교재로 채택하여 진행했다. 다음 과정으로 성경적 아내교실 등 새로운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 이수 후에도 졸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더 와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 다음 과정에 대한 기대와 참여도가 높다.

나. 양육 중심 소그룹 평가

새 가족 제자훈련은 정착률이 보여 주듯이(90퍼센트) 새롭게 등록된 성도들이 담임목회자와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바나바 사역자와 구역장 그리고 여전도와의 연계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 가족이 교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TEE 공동체 훈련은 말씀 안에서 중직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상호간에 교제가 단절되어 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TEE 제자훈련은 말씀 공부와 교제라는 두 측면은 부각시켰으나, 소그룹원들과 그다음 과정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눌 만한 소재의 부재와 직면하게 되

면서 형식적인 성경공부로 그치고 말았다.

마더 와이즈는 매 기수 평균통계를 보면, 타교인이 전체의 25퍼센트, 비신자 5-10퍼센트, 장기결석자 5퍼센트, 미등록교인 5퍼센트가 보여 주듯이 의성교회 교인 뿐 아니라, 불신자나 장기결석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경공부와 교제 그리고 전도라는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성교회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가정회복사역에 구심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3. 기도 중심의 소그룹

가. 기도 중심의 소그룹 현황

의성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기도 중심의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성교회의 기도 중심의 소그룹은 권사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한나회 기도회가 있다.

권사회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인다. 의성교회 권사회에 소속된 인원은 40명이다. 이들이 소그룹을 나누어 10명-12명 정도가 기도모임을 한다. 기도회 순서는 사도신경, 찬송(15분), 말씀, 기도(개인기도, 교회 중요 행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인도자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친다.

여전도회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의성교회 여전도회는 15개의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소그룹으로 기도하며 평균 10명-12명 정도가 모여 기도모임을 한다. 사도신경, 찬송(15분), 말씀, 기도(개인기도, 교회 중요 행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인도자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친다.

한나회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한나회는 70세 이상의 여성도들로 이루어진 기도회다. 평균적으로 10명-15명이 모여서 소그룹 기도회를 한다. 이 기도회는 다른 기도회와는 달리 교역자 중심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진다. 한나회 회장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중간에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 담당 교역자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나. 기도 중심의 소그룹 평가

모든 기도 중심의 소그룹은 자발적 기도회다. 교역자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권사회, 여전도회 그리고 한나회가 오랜 시간동안 유지해온 기도회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기도회가 주중에 이루어져 있어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또한 남성 성도들의 기도중심 소그룹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는 대그룹 기도회와 소그룹 기도회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기도 소그룹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성들의 기도 소그룹이 전혀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전도 중심의 소그룹

가. 전도 중심의 소그룹 현황

의성교회는 매주 화요일 전도 중심의 소그룹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진다. 전도·선교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내 전도팀 산하에 전도 소그룹이 속해 있다. 4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그룹마다 팀장이 있다. 노방전도의 형식으로 전도한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9시에 천막설치 팀이 모여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전도를 위한 소그룹은 10시 30분에 연합으로 모여서 30분정도 기도회를 한다. 11시가 되면 각자 정해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한다.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커피와 토스트를 구워서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고, 봄부터 여름은 커피, 아이스티와 함께 전도지 그리고 주보를 나눠줌으로써 전도한다. 전도를 마치면 소그룹별로 교회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한다. 전도가 끝이 나면 팀장들은 각 소그룹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전도 중심의 소그룹 평가

의성교회에 속해 있는 전도 중심의 소그룹은 매주일 기후변화와 상관 없이 전도를 한다. 이를 통해 수평 이동하는 성도,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성도, 그리고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을 한다. 특별히 중동 중앙공원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중앙공원 전도팀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용의 한 끼를 대접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 지는 것도 이 소그룹이 지니

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쉬운 점은 전도 중심의 소그룹이 주로 여성들의 사역에 국한 되어 있다는 점과 다양한 전도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성경통독 중심의 소그룹

가. 성경통독 중심의 소그룹 현황

분주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성경읽기가 이에 해당된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교인이 41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¹⁰²⁾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의무다. 의성교회는 2013년 1월부터 성경통독을 위한 주일반 소그룹을 시작했다. 팀장으로 장로가 세워졌고, 10-15명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일독을 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현재는 성경통독 소그룹 5기가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요청이 있어 현재는 주중 성경통독 소그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성경통독 중심의 소그룹 평가

성경통독중심의 소그룹은 한명의 장로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소그룹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통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은 성경통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읽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4 절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의 필요성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성교회 소그룹은 전통적 교회의 특성에 걸맞게 각각의 기능적인 측면 즉, 예배와 친교, 전도, 양육, 그리고 사역이라는 소그룹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소그룹으로 볼 때 문제는 없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은 없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성

102) “한국교회 전도를 막는 것들,” 크리스찬 연합신문, 2014년 8월 29일자.

되고, 성장하는 구도로 소그룹이 운영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사역하며, 전도와 선교를 하며, 양육 받고 양육하며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과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그 목적에 맞는 소그룹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단편적인 열정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양육 그리고 교제의 영역 중 그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최상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요,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다.¹⁰³⁾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평신도는 교회의 핵심이며, 모여 있는 교회(에클레시아)와 흩어져 있는 교회(디아스포라) 사이를 연결시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며 복음과 세상을 만나게 해 주는 가교”라고 말했다.¹⁰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처럼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 그리고 교제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현장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통합된 기능을 하는 소그룹을 정확히 묘사해 준다. 오순절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삼천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며 교제의 공동체로 들어왔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예배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증가했다(행 2:1-47). 특별히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 갔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통합적 기능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신앙과 자신의 은사만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통합적 기능 즉,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교제,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 이것이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이다.

103)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26-27.

104) Ibid., 27.

제 5 장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

앞 장에서는 의성교회의 목회 환경과 역사와 비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려 한다. 먼저, 의성교회에서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기존 조직과 균형 유지와 소그룹 중심의 사역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및 소그룹 중심의 사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의성교회 소그룹 활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소그룹 운영 지침서로 소그룹 구성원 조직과 역할, 소그룹 모임의 원칙과 순서, 그리고 소그룹 분가의 원칙과 방법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더 건강한 의성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와 기대를 논의 할 것이다.

제 1 절 의성교회에서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전략

의성교회는 33년 된 전통적인 교회로 당회 중심적이고, 교회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며, 대그룹 예배로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그리고 금요심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이다. 본 연구자가 담임 목회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며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1. 기존 조직과 균형 유지

목회자가 전통적 교회에 부임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갈 때 큰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할 때에는

기존의 조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의성교회의 기존 조직으로는 당회, 위원회, 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다. 이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조직은 '당회'이다. '당회'라는 조직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수 없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회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고, 둘째, 제반예배를 주관하고, 셋째, 학습입교 및 세례의 문답과 시행, 넷째, 성찬예식의 주관, 다섯째, 교회의회의 소집권, 여섯째,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열세 번째,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하는 일을 감당한다.¹⁰⁵⁾ 당회 조직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구역 조직과의 균형유지 역시 중요하다. 의성교회의 소그룹 조직은 장로로 구성된 8명의 지역장과 54명의 구역장과 54명의 권찰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역으로 모이는 소그룹의 특징은 성경공부와 교제가 중심이 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소그룹은 통합적 기능 즉, 소그룹 안에서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33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 가정에서 모이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으로 전환할 때 지역장과 구역장 그리고 권찰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거부를 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구역을 인정하면서 먼저 지역장과 구역장 그리고 권찰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토양 작업이 필요하다.

남, 여전도회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의성교회는 구역이라는 조직과 여전도회라는 두 조직이 균등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구역이 목양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남, 여전도회는 사역적인 측면이 강하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조직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전통적 교회에서 남녀 전도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단기간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도회 임원들을 시작으로 각 지 여전도회 임원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토양 작업이 필요하다.

10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295-296.

2. 소그룹 중심의 목회 구조를 위한 과정

가. 소그룹 사역의 방향

소그룹 사역의 핵심방향을 정하는 것은 마치 출항하는 배가 목적지를 정하고 항해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소그룹 사역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행전의 소그룹 모델을 회복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모델은 사도행전 2장의 모델이다. 여기에는 소그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행 2:42). 초대교회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교회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떤 때면서 기도를 함으로 소그룹 활동을 했다. 소그룹 사역의 방향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떤 때면서, 식탁공동체를 형성했다(행 2:46).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끊이지 않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구원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행 2:47).

둘째, 영혼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디모테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기 때문이다(딤후 2:4).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에도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러나 대그룹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다. 소그룹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성숙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행 2:44-45).

셋째,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소그룹의 존재 목적으로 둔다. 예수님은 12명을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소그룹을 구성하셨다. 소그룹을 통해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마 28:19-20).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시 소그룹으로 모아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실행했다(행 2:42).

넷째, 이론 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전통적 교회의 소그룹은 주로 지식전달과 교실 교육과 가르치는 사역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이런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로의 방향을 지양하는 역할을 한다. 소그룹의 건강의 핵심요소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삶으로 살

아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행동으로 본이 되는 제자 훈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막 3:14-15).

다섯째,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언급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성도다. 평신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회자를 두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세우는 사역의 주체로 양육하고, 성도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엡 4:11-12). 이처럼 목회자와 평신도의 기능이 회복될 때 교회는 건강해 질 수 있다.

여섯째, 신약 공동체가 가졌던 지속성, 다양성, 그리고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도 했고(행 2:46),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일 모였다(행 20:7). 모임의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는 소그룹 안에서 남녀가 같이 모였다(롬 16:3-5). 본 교회는 남성 소그룹과 여성 소그룹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특별히 남성 그룹은 같은 연령별로 모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초대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확장성이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모였다(고전 14: 23-25). 의성교회 안에서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소그룹 사역의 방향은 신약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것이다.

나.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담임목회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소그룹을 섬길 평신도 리더십들이 준비되는 것, 그리고 전교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소그룹 사역을 위한 담임목회자의 준비과정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를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대상은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이다. 소그룹 사역을 위해 담임목회자가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자신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다. 한스 핀젤은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¹⁰⁶⁾ 이처럼 리더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방향, 동기, 그리고 방법이다. 항해하는 선장이 배를 띄울 때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배는 표류하다 좌초하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나, 방향 설정과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향이 분명하면 동기 부여가 되고, 동기 부여가 되면 당연히 방법이 나온다.

둘째, 소그룹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확신과 위임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방향과 동기 그리고 방법이 좋아도 소그룹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확신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의 활성화이다. 평신도를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목양의 많은 부분을 위임해야 한다. 한스 핀젤(Hans Finzel)은 리더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말한다. “권한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을 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일을 해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훈련과 긍정적인 경험의 부족”¹⁰⁷⁾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자가 두 번의 개척 교회를 통해 경험한 바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맡겨주면 열심을 다한다는 것과 그들을 통해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사역을 위임하셨다(마 28:19-20). 온전하지 않은 제자들이었지만 위임할 때 그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처럼 위임을 할 때 평신도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될 것에 대한 목회자의 확신은 중요하다.

셋째,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단편적인 지식과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으

106) Hans Finzel,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조기현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2002), 16.

107) Ibid., 119-122.

로는 소그룹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먼저 경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소그룹에 관한 컨퍼런스는 가정교회 사역원이 추구하는 모델이다.¹⁰⁸⁾ 이 컨퍼런스는 소그룹 사역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명확히 제시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돕는다. 4박 5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 가정교회의 이론을 배우고 동시에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소그룹리더)의 가정에서 가정교회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성경공부를 위한 후속 세미나와 지역 목회자들의 모임¹⁰⁹⁾이 있어 구체적인 나눔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지역모임에서 가정교회의 세부적인 면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컨퍼런스나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임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그룹의 사역은 철저한 위임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신도의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에 입각하며 투명하고 정직하며 교인들을 존중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가정을 성도들에게 열고, 그곳으로 초대해서 소그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신뢰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에 성공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소그룹 교회로의 전환에 앞서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이미 담임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 간에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된 리더들에게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와 방법을 부여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었다.

(2)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중직자의 준비과정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담임목회자와 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

108) 본 연구자는 이미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개최한 제7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및 삶 시리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체험한 바 있다. 참조: www.housechministris.org.

109) 가정교회 사역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지역별로 나누어 목회자들을 위한 지역모임이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과 발전에 대해서 서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는 부류는 교회 중직자들이다. 특별히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한 경우가 아닌, 전통적 교회에 청빙되었을 경우 중직자를 설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중직자의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로나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와 같은 중직자들을 소그룹 사역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전통적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의성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가 30명이 넘는다. 이들이 소그룹 사역에 주체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 할 수 없다. 전통적 교회의 중직자들은 섬기는 것보다 다스리는 데에 익숙해 있고, 무엇보다 대그룹 안에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것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이들을 소그룹에 참여시킨 후,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시키는 것이다.¹¹⁰⁾

둘째, 세미나에 참석한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 전환을 위한 연구 위원회를 발족시킨다. 담임목회자는 이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시키고,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의 주체자가 되도록 독려한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중직자들 스스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셋째, 담임목회자가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소그룹을 실시한다. 본 연구자가 한국에서 개척을 할 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시범 복장을 실시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 소그룹을 갖는 것이 좋다.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모임을 갖고, 재미와 흥미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 할 수 있다.

(3) 소그룹 사역을 위한 평신도의 준비과정

소그룹 사역의 꽃은 평신도다. 소그룹 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평신도들의

110) 목회자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했을 경우 그 교회 성도들은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참조: www.housechministris.org.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평신도의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 교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의 가장 큰 요구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의성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한 특성이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주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전통적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으로의 전환은 교인들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담임목회자와 당회 그리고 중직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그룹 교회로 전환 할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담임목회자가 주일날 시리즈 설교를 통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필요성을 전하고, 교회 소식지와 주보를 통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연재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그룹 중심의 교회들이 지니는 한계를 설명하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때와 소그룹을 섬길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셋째, 이미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나 집회를 갖는다. 본 연구자가 개척교회에서 시무할 때 세미나를 들었던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들을 초청해 집회를 하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동시에 매주 금요일 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 불신자가 전도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전도되어 세례 받고 구원 받는 일이 있었다.

3.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 정착을 위한 과정

본 연구자가 2015년 5월에 의성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전통적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소그룹 중심의 목회 구조 정착을 위한 과정은 적응기, 기경기, 준비기, 전환기, 출범, 그리고 정착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정착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적응기

적응기라 함은 본 연구자가 의성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의성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해서 담임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인과 목회자 상호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목사의 신분에서 담임 목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열정적으로 목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이 먼저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그룹들과의 비전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는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 가정이 담임목사의 가정에서 원형 소그룹을 실행하고, 그곳에서 오는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준비과정에서 전 교역자가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적응기라고 부른다.

나. 기경기

기경기라 함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시도할 결단을 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토양작업의 기간을 말한다.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매 예배시간마다 교회의 비전을 외워 복창하게 한다. 설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약교회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성경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또한 지역모임에 참석(부천지역)해서 먼저 시도하고 있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지역 목회자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또한, 시무 장로들의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통찰력을 길러주고 시무장로들에게 동역자로서의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며, 시무장로 전원이 합심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며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권면한다. 시무장로 전원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린다.

장로들 전원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경험하고 나면 1박 2일 비전 수련회를 갖는다. 밤샘 기도와 토론을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것들은 추후 작성하기로 한다.

다. 준비기

준비기이라 함은 소그룹 지도자들로 하여금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것을 교육하는 기간이다. 먼저, 구역지도자(구역장, 권찰)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교육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저녁 예배 후 월 1회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시무장로에게 평신도 세미나 경험을 토대로 간증과 교육을 받는다. 셋째, 시무장로의 교육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하는 식으로 담임목회자가 강의를 마무리한다. 다섯째, 성경적인 교회 세우기를 위한 비전 나눔을 가진다. 여섯째, 낮에는 여성 소그룹과 밤에는 남성 소그룹 모임이 부부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시무장로들이 직접 소그룹 중심의 사역 비전을 교육함으로써 평신도 주도형으로 전환을 준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신도 리더들로 하여금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고 수요예배시간마다 평신도 세미나 경험에 대해서 간증하게 함으로 준비기의 과정을 가진다.

이와 같은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 전환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결성하고 전환의 시기와 소그룹에 관련된 용어를 결정해야 한다.

라. 전환기

전환기라 함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를 말한다. 전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주일 설교다. 의성교회의 전 성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주일 낮 예배다. 이 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시리즈로 설교한다.

또한 당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제직회를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교회의 방침으로 통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전 교인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성경적인 교회 세우기 비전과 소그룹 중심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장로들이 3개 분야 즉, 평신도의 사역, 구역의 변화, 그리고 영혼구원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 방침을 투표로 통과시키고 합법화함으로 전체 성도들의 동의하에 전환사역

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직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담임목회자 인도아래 ‘21일 진 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 다음은 소그룹 리더를 새롭게 선출한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한 평신도와 목회자와 함께 교육을 받은 대상들 중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소그룹 리더 후보들을 선정한다. 가능하다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후보를 세우되 남자 중심으로 세운다. 이들을 중심으로 1박 2일 소그룹리더 부부 수련회를 가진다. 수련회 후 선발된 리더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소그룹을 실시한다.

시범 소그룹이 끝나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세우기’ 캠페인을 가진다. 배너를 제작하고 예배실 전면,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곳곳에 홍보물을 제작한다. 주일 설교를 통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세우기’¹¹¹⁾를 강조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참석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금요연합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먼저, 교회에서 다 함께 저녁식사 후 예배실에서 찬양을 하고, 각 소그룹 별로 교실에서 다과를 나누며 모임을 갖는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선교지를 정하고(소그룹 이름), 소그룹 모임에 대한 순서를 오리엔테이션하고, 세 번째 모임부터는 소그룹 리더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 때 싱글들을 위한 소그룹도 함께 모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 출범 및 정착

출범이라 함은 공식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소그룹의 조직이 완료되고, 무엇보다 소그룹 리더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진 교인이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해야 하며, 원로목사 초청하여 안수와 꽃다발 증정을 함으로서 그 권위를 높여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적 교회를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로 전환하여 정착 할 수 있다.

111) 본 연구자가 계획하고 있는 설교는 총 8주인데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섬기는 소그룹, 함께 성장하는 소그룹, 함께 관계를 세워가는 소그룹, 함께 예배하는 소그룹, 함께 나누는 소그룹, 함께 전하는 소그룹, 함께 동행 하는 소그룹”이다. 통합적 기능을 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이끄는 설교다.

제 2 절 의성교회 소그룹 활성화 전략

소그룹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는 리더십에 있다. 리더가 곧 소그룹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십 개발, 리더의 훈련과정과 내용 그리고 소그룹 구성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십 개발

가. 소그룹 리더의 자격

의성교회가 정한 소그룹 리더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목회자와 제자훈련의 과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의 리더는 반드시 담임 목회자와 함께 성경공부와 리더십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의성교회의 리더십들(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을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담임목회자로부터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받아 본적이 없었다. 그 결과, 교회가 평안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전체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를 분열하는 일에 앞장 서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의성교회에서는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을 통과 한 후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설령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 어떠한 경우라도 리더로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성교회의 리더의 제 1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 실시하는 첫 단계 성경 공부인 '1독 성경통독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과정을 이수한다. 다음으로 '삶공부' 중에 세 과정(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을 마쳐야 한다. 또한 가정 교회에서 제공하는 1대 1의 성경 공부 2개(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을 수료할 때 '소그룹 대행리더' 또는 '소그룹 리더'로 임명한다.

둘째, 성경적인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데이브 얼리(Dave Earl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그룹 리더가 그룹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이다."¹¹²⁾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로써 자리

112) Dave Early,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유정희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36.

를 잡느냐의 문제는 리더의 기도에 달려 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한다. 이때 소그룹 리더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성교회는 기도하는 리더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의 기도생활(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을 철저히 점검한다. 설령 과거에 기도 생활이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훈련을 시킨다. 기도는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까지 훈련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운다.

셋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로 세우되 남성 리더들을 세운다. 이 말의 의미는 남성들만 고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경을 보면 탁월한 여성 리더들이 등장한다. 구약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는 드보라다(삿 4:4).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일하셨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 자신의 집을 소그룹 교회로 허용한 눘바(골 4:15), 로마인으로 브리스가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천막업자인 브리스길라 역시 자신의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한 초대교회의 여성지도자이다. 그 외에도 루디아(행 16:15), 압비아(골4:9), 뵤뵤(롬 16:1),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가 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도 여성지도자들을 소그룹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교회도 탁월한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소그룹을 위한 리더의 조건으로 부부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며 그들 중에 아내의 지지를 받는 남성이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려고 한다. 이유는 불신 남성은 여성 리더십을 좇는 것이 힘들고, 남성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그 뒤에서 아내들이 그들을 지원할 때에 야기되는 문제없이 교회가 성장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성경적인 리더는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폴 부로다카스(Paul Braoudakis)는 “인도자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세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헌신한다”¹¹³⁾고 말한다. 세

113) Paul Braoudakis, *윌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206.

상적 관점에서의 리더십은 권력 및 명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끌어 주는 유능한 사람으로 간주한다.¹¹⁴⁾ 하지만 성경적인 리더십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다. 구약을 대표하는 섬김의 리더는 다윗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가족과 사백 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온다(삼상 22:1-2).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돌보아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다윗은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긴다. 다윗은 섬김의 리더였다.

신약을 대표하는 섬김의 리더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였다. 예수님이 12명의 불신자들을 모아 소그룹을 이룬 후 지속적으로 섬김의 도를 보이셨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다(마 13:1-11).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죄인 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시작에 불과했다.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다(마 27:11-50; 막 15:33-41; 눅 23:3-49; 요 18:39-16:16).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고 말한다. 소그룹의 리더의 자격요건은 철저하게 섬김의 본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으뜸이 되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소그룹 리더로서의 자격을 겸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막 10:44).

나. 소그룹 리더의 임명

소그룹리더의 임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목회자와 함께 하는 제자훈련 과정 중 1단계-2단계를 수료한 사람들을 ‘소그룹 대행리더’로 임명하고, 마지막 3단계 과정인 ‘리더십과 영성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정식 ‘소그룹리더’로 임명한다. 그러나 ‘대행리더’나 ‘리더’ 모두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다.

114) Melvin J. Steinbron, *평신도 목회를 깨우라*, 홍영표 역 (서울: 이레서원, 2000), 74.

둘째, ‘소그룹 리더’나 ‘대행리더’를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담임목회자와 개인면담을 한다. 면담을 통해 십일조,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그룹 리더로 섬길 수 있는지 담임목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 제자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과 삶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리더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목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셋째, 소그룹 리더 서약서에 서약 할 경우 최종적으로 리더 임명을 확증한다. 리더 서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1에 게재되어 있다. 리더 임명은 주일 예배 시 공식적으로 하며 이때 담임목회자, 지역장 그리고 구역원들이 나와서 포옹하고 축하해주는 것으로 모든 임명의 과정은 끝을 맺는다.

2. 소그룹 리더의 훈련과정과 내용

가. 소그룹 리더의 훈련 과정

의성교회에서 실시하는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새 가족 바로세우기, 둘째,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기, 셋째, 삶공부의 단계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소그룹 리더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의성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은 <표 5>에 나와 있다.

<표 5> 의성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

		리더 훈련 과정	
1단계	새 가족 바로세우기		
2단계	90일 성경일독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3단계	삶 공부 기본과정		
	교실 삶 공부	생명의 삶-새로운 삶-경건의 삶	
	소그룹 삶 공부	확신의 삶-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 새 가족 바로세우기

의성교회에서 실시하는 1단계 제자훈련은 기초과정이다. 의성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은 ‘새가족 바로세우기’의 6주 과정을 수료한 후에야 정식 등록교인이 된다. 이

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어 놓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교회에 등록했다고하여 무턱대고 정식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다(벧전 5:8). 새 가족을 위한 공동체 제자훈련을 통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기존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터를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별히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신앙을 기초로 세워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담임목회자의 복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성교회에 속해 있는 소그룹 리더를 포함해서 전 성도들이 들어야 한다.

(2) 성경 일독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기

의성교회에서 실시하는 2단계 리더 훈련은 토양작업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성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신앙적 기초과정이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채 리더로서 소그룹을 인도할 수는 없다. 또한 성경공부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방향성이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과정은 소그룹 리더로 하여금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성경의 핵심원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3) 삶 공부¹¹⁵⁾

의성교회에서 실시하는 3단계 리더훈련은 '삶 공부 기본과정'이다. 삶 공부란 "지식을 위한 교육 중심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강조하는 현장 중심의 제자훈련 원리를 담고 있는 과정이다."¹¹⁶⁾ 제자훈련의 뜻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있

115) 삶 공부는 가정교회 사역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자는 휴스턴 서울 교회의 삶 공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소그룹 리더 양육에 적용시키려 한다. 참조: www.sbchouston.org

116) 조태환, *환희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62.

다. 삶공부가 소그룹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연결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 공부 기본과정은 크게 둘로 나뉘지는 데 ‘교실 삶 공부’와 ‘소그룹 삶 공부’로 구분되어 있다. ‘교실 삶 공부’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단계별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생명의 삶-새로운 삶-경건의 삶’의 순으로 진행된다.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 후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또한 인도자와 일대일로 하는 소그룹 삶공부는 ‘확신의 삶-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 담임목회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로 세워진다.

나. 소그룹 리더의 훈련 내용

소그룹 리더 훈련은 10주-16주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단기간으로 훈련 기간을 잡은 것은 학습자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또한 수료식을 통해 성취감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그룹 리더의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 가족 바로 세우기

‘새 가족 바로세우기’의 훈련 내용은 총 6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재는 신현수 목사가 저술한 새 가족 바로세우기: 새 신자 학습 교재(도서출판 크리스천리더)를 사용한다. 새 가족 성경공부 진도 <표 6>와 같다.

새 가족 바로세우기는 각 공과마다 교재의 구성이 ‘T&T/생각나누기’는 그림이나 예화의 내용을 읽거나 깊이 생각하고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코너이다. ‘말씀 나누기’는 그 과의 주제에 맞춰서 답을 쓰거나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써 말씀을 배워가는 코너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나누기’는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써 자연스러운 결론을 유도하는 기도로 끝을 맺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새 가족 바로세우기 진도표¹¹⁷⁾

주제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주	인간은 왜 죄인인가?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나요?	4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기도하면 정말로 들어주시나요?
5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주	교회목회철학과 비전 나눔 담임목회자와 새 가족 식사

특별히 6주차에는 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 담임목회자와 새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식당 섭외 및 새 가족 식사 대접은 담임목회자가 함으로써 섬기는 교회의 이미지를 심어준다. 본 연구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때 새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옴과 동시에 의성교회의 교인 외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한다. 이 때 소그룹 리더와 각 전도회 회원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면서 포옹을 하며 축하한다. 단, 이 때 1주 이상 빠진 사람은 수료가 되지 않음으로 결석한 부분을 다음 기수에 참여하여 보강한 후, 수료 할 수 있다.

(2) 90일 성경통독과 함께 하는 하나님나라 이해하기

이 과정의 훈련 내용은 통독 강의 16주와 성경통독 16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두 권의 책을 준비해야 한다. 통독 강의 교재는 주해홍이 저술한 통큰 통독이고, 성경통독을 위한 성경은 통큰 통독 성경이다. 강의 진도는 <표 7>과 같다.

학습을 위한 시간 배분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로 시작(시간: 2-3분), 찬양나누기(시간: 5분-10분), 강의(시간: 40분-50분)를 듣는다. 강의를 끝나면 각 소그룹으로 흩어져 소그룹 리더의 인도 아래 생각나누기(시간: 5분-10분), 말씀 나누기(시간: 30분), 그리고 기도와 결단의 시간(시간: 5분-1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그룹 기도와 찬양 인도는 찬양 담당 교역자가 진행하고, 강의는 담임목회자가 한다. 소그룹 모임은 평신도 소그룹 리더들이 인도를 하고, 총무를 두어 구성원들이 주중에 성경을 진도표에 따라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117) 신현수, 새 가족 바로세우기 (서울: 크리스천리더, 2013), 9.

<표 7> 통큰 통독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진도표¹¹⁸⁾

시간 흐름으로 분해해서 읽기			
1주	신구약 목록 제정비	2주	성경의 맥과 관점 알아보기
구약의 시간 흐름으로 읽기			
3주	창조시대	4주	족장시대
5주	출애굽, 광야시대	6주	가나안 정복 시대
7주	사사 시대	8주	통일 왕국 시대
9주	분열 왕국 시대	10주	포로시대
11주	포로 귀한 시대	12주	신구약 중간 시대
신약의 시간 흐름으로 읽기			
13주	복음 시대	14주	교회 시대
15주	마지막 때	16주	종강파티

이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소그룹 리더들은 단순히 성경개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각 시대별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과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면 종강파티를 하는데 이 때는 소그룹 별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3회 이상 결석한 사람은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 기수에 참여해서 보강해야 한다.

(3) 교실 삶 공부 1-생명의 삶

이 과정의 훈련내용은 13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는 천석길이 편집한 *가정교회 삶공부 첫 단계*(도서출판: 요단)이고 성경은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한다. 강의 진도표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학습을 위한 시간 배분은 기도로 시작(시간: 2-3분), 찬양나누기(시간: 5분), 강의(시간: 90분), 그리고 결단의 시간(시간: 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를 끝나면 학습자는 반장에게 숙제를 제출한다. 숙제는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다. 강의는 담임목회자가 하고, 학습자 가운데 반장을 선출해서 숙제 회수 및 점검(교재, 성경읽기와 요약, 성경구절 암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회계로 선출된 자는 간식을 준비한다.

118) 주해홍, 통큰 통독 (서울: 두란노, 2014), 16.

<표 8> 생명의 삶 강의 진도표¹¹⁹⁾

() 안의 것은 재수강자의 요약성경

주	주제	요약해 올 성경 장 수	날짜
1주	서론		
2주	죄/하나님의 사랑	요 1-4장 (행 1-4장)	
3주	회개/신앙	요 5-8장 (행 5-8장)	
4주	중생/구원의 확신	요 9-12장 (행 9-12장)	
5주	그리스도의 생활/성장	요 13-16장 (행 13-16장)	
6주	성경/하나님	요 17-21 (행 17-20장)	
7주	예수그리스도/성령	약 1-5장 (행 21-24장)	
8주	교회/교회회원	롬 1-4 (행 25-28장)	
9주	교회생활/그리스도인의 신분	롬 5-8장 (고전 1-4장)	
10주	그리스인의 행실/승리의 생활	롬 9-12장(고전 5-8장)	
11주	헌신의 동기/헌신의 방법	13-16장 (고전 9-12장)	
12주	헌신의 결심/헌신의 보장	요일 1-5장 (고전 13-16장)	
13주	시험		

이 공부과정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과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담임목회자의 회심하게 된 계기와 목회철학을 듣는 것으로 성경공부가 시작된다. 13주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주일 낮 예배시에 수료식을 하는데 이 때 소그룹에 속해 있는 리더와 가족들이 나와서 꽃다발 증정과 함께 포옹을 한다. 단, 4번의 결석이 있으면 수료가 불가하며, 반드시 전 과정 재수강을 해야 한다. 삶 공부 과정부터는 훈련의 강도가 더욱 강화된다.¹²⁰⁾

(4) 교실 삶 공부 2- 새로운 삶

이 과정의 훈련 내용은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는 *새로운 삶의 실천* (도서출판: NCD)이다. 강의 진도표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학습을 위한 시간 배분은 생명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 과정의 목적은 예비 소그룹 리더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나님

119) 천석길, 최영기,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 (서울: 요단, 2011), 6.

120) 부록 2. 삶 공부 안내 참조. 부록 3. 성경 암송 표 참조.

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에 익숙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삶 공부다. 여기서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서적 개념들을 이해한다. 소그룹 리더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된다. 수료식 과정은 생명의 삶과 동일하다.

<표 9> 새로운 삶 강의 진도표¹²¹⁾

주	주제	날짜
1주	개강-새로운 삶이란	
2주	하나님 나라의 삶-나의 새 가족	
3주	하나님 나라의 삶-함께 여행해 봅시다.	
4주	이 세상 나라들-낯은 것들	
5주	이 세상 나라들-무엇이 새로운가	
6주	종의 삶-섬김의 준비	
7주	종의 삶-하나님을 가까이 함	
8주	나의 삶-건고한 진을 다루는 법	
9주	나의 삶-태도를 다루는 방법	
10주	권세를 대면함-영적전쟁	
11주	권세를 대면함-씨름하기	
12주	다음 단계-여행	
13주	종강-시험 및 정리	

(5) 교실 삶 공부 3-경건의 삶

이 과정의 훈련 내용은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는 *영적 훈련과 성장* (도서출판: 생명의 말씀사)이다. 강의 진도표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학습을 위한 시간 배분은 생명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 과정의 목적은 소그룹 리더들로 하여금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도록 하고, 학습하는 여러 종류의 훈련을 한 번씩 실습해 보면서, 자아 중심에서 타아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데 있다. 영성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론적 훈련이 아니라, 배운 것

121) Ralph W. Neighbour, *새로운 삶의 실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

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영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한 가지 결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게 된다. 훈련된 리더가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보다 더 잘 섬긴다. 수료식 과정은 생명의 삶과 동일하다.

<표 10> 경건의 삶 진도표¹²²⁾

주	주제	날짜
1주	영적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 및 서론	
2주	기도의 훈련	
3주	예배의 훈련	
4주	섬김의 훈련	
5주	금식의 훈련(세족식)	
6주	고백의 훈련	
7주	학습의 훈련	
8주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9주	묵상의 훈련	
10주	복종의 훈련	
11주	단순성의 훈련	
12주	홀로 있기 훈련	
13주	기뻐하는 훈련	

(6) 소그룹 삶 공부 1-확신의 삶

이 과정의 훈련 내용은 6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는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도서출판: NCD)이다. 강의 진도표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이 과정의 목적은 새 가족 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첫 걸음을 바르게 내딛도록 소그룹 리더가 구성원들을 인도하는 일대일 수업의 삶 공부다. 새 가족은 교재를 가지고 주 5일간 하루에 한 과씩 교재를 읽고 답을

122) Richard J. P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4-15.

써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새 가족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다. 또한 새 가족 인도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델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일대일 특별 훈련이다. 이때 대부분의 새 가족들이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간다. 새 가족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신앙 성숙으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표 11> 확신의 삶 강의 진도표¹²³⁾

주	주제	날짜
1주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2주	한 몸(그것의 생명과 섬김)	
3주	두 가지 속성(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4주	구원의 3가지 단계	
5주	이내 가지 권위의 원천들	
6주	다섯(다섯의 원리)	

(7) 소그룹 삶 공부 2-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과정의 훈련 내용은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서출판: 요단)이다. 강의 진도표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법을 발견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소그룹 리더로 임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수업과 정이다. 소그룹 리더가 아닌 사람이 공부할 경우, 목양 없는 지식위주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나 대행리더로 임명을 받을 성도만 수강하게 한다. 공부 방식은 확신의 삶처럼 일대일로 지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세 사람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다.

3. 소그룹 리더의 지속적인 돌봄

본 연구자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리더훈

123) Ralph W. Neighbour,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주희채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4-5.

련을 하고 양성해서, 그 가운데 리더를 선별하고 사역에 투입하고서 몇 년이 못 되어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 주된 원인은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그룹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독려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진도표¹²⁴⁾

주	주제	날짜
1주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2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3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4주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5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부	
6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부	
7주	믿음의 갈등	
8주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9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	
10주	하나님의 뜻과 교회	
11주	하나님 나라 시민들	
12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13주	총정리	

가. 지속적 돌봄 과정

(1) 지속적 돌봄의 과정으로서 ‘평생 교육과정’¹²⁴⁾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성교회는 TEE코리아와 연계해서 ‘TEE 공동체 학습방법’을 도입해 리더들을 위한 평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TEE코리아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으며, 이미 현장에서 가진 경험을 통해 소그룹 리더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제공하며 소그룹 사역에 지치지 않고 섬기는 리더로 세울 계획을 모색해 두었다.

124) Henry T. Blackaby and, Claud V. King,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문정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9.

(2)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정기 수련회를 갖는다

지도자들을 위한 정기 수련회를 갖는다. 1박 2일 코스로 갈 수 없다면 교회에서 토요일 하루를 수련회로 진행할 수 있다. 강의는 담임목회자가 하고, 소그룹 사역에 대한 특강을 듣는다. 그러나 강의나 특강을 할 때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목양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3) 소그룹 리더 부부 모임을 갖는다.

담임목회자의 주관하에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리더 부부가 담임목회자와 함께 교회에서 모인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소그룹 사역의 80퍼센트 이상은 리더의 아내 몫이다. 소그룹 리더가 나머지 20퍼센트만 채워줘도 탁월한 소그룹 사역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부부가 모여 가정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의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 지속적 돌봄 내용

소그룹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한 내용은 크게 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과정, 성경연구과정 그리고 교회리더 훈련과정이다. 지속적인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지속적 돌봄을 위한 전체과정¹²⁵⁾

기본과정	성경연구과정	교회리더 훈련과정
풍성한 생명(13주)	신약개론 각권 12주	예수님의 생애 각권 12주
풍성한 빛(10주)	제 1권 복음서.행전	제 1권 서론. 유아기
기도(10주)	제 2권 바울서신	제 2권 준비의 해
신앙의 토대(12주)	제 3권 일반서신,계시록	제 3권 인기의 해
잠언(10주)	구약개론 각권 12주	제 4권 수난의 해
가정생활(10주)	제 1권 율법서	제 5권 수난의해(고난)
	제 2권 역사서	제 6권 부활의 해
	제 3권 시가서	
	제 4권 선지서	

소그룹 리더를 돌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과 동시에 소그룹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TEE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학습’이 두 요소를 충족해 준다. 공동체 학습 방법의 특징은 모든 학습이 토론과 나눔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며 지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지속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과정은 소그룹 리더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의 기본을 다진다. 나아가 성경연구 과정을 통해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소그룹 사역의 재동기부여가 된다. <표 13>에 나온 커리큘럼 이 외에도 창세기 1-2권, 사도행전 1-2, 로마서 5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다. 본 연구자는 TEE코리아(대표 조성래)와 의성교회 소그룹 리더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역에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역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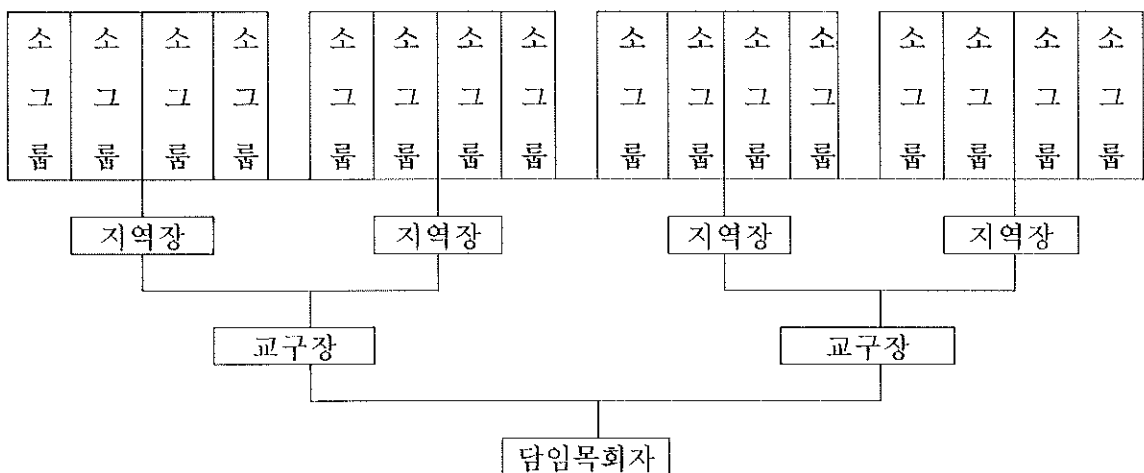
4. 소그룹 구성의 방법과 원칙

가. 소그룹 조직과 리더의 역할

(1) 소그룹 조직

의성교회의 소그룹의 조직은 담임목회자, 교구장, 지역장,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의 구체적인 조직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소그룹의 조직표



<표 14>에 나와 있듯이, 의성교회 소그룹 조직도를 보면 담임목회자가 제일 아래에 있다. 여기에도 목회철학이 담겨 있는데, 목회자는 모든 리더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다. 목회자가 교구장을 섬기고, 지역장은 소그룹리더들을 섬기는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2) 소그룹 리더의 역할

소그룹 조직은 각 직분마다 그 역할이 있다. 담임목회자의 역할은 소그룹 리더를 만나 격려한다. 지역장들과 함께 소그룹 리더들을 만나서 점심을 한다. 만나서 리더들의 가정생활과 생업에 관심을 기울여 듣고 조언을 하며, 교회와 소그룹에 관한 리더들의 제안을 듣는다. 소그룹 리더가 담임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소그룹 리더의 사역을 돕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엡 4:11-12).

교구장은 주로 장로들이 담당을 한다. 의성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로들을 훈련시켜 교구장으로 세워 지역장들과 협력하여 소그룹을 돕도록 한다. 교구장은 지역장과 소그룹 리더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갖는다. 이 때 목자 개인의 삶과 사역의 고민을 나누고 새로 임명된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구장도 반드시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지역장은 안수집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교구장과 협력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돕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 소그룹 리더는 6-12명의 구성원들의 삶을 돌아보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일을 감당한다.

나. 소그룹 구성방법과 원칙¹²⁶⁾

소그룹 구성 방법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을 위한 소그룹 구성 방법에 있어서 교인들이 소그룹과 리더를 선택할 권한을 준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교회는 소그룹을 교역자들이 조직하고 지정해 주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의성교회는 교인들이 소그룹을 선택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한다. 이유는 평신도는 선택권이 주어질 때 더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그룹 리더는 교인들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소그룹

126)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89-91.

을 섬기게 된다.

둘째, 교인들이 선호하는 리더 순으로 3-5명을 표기하도록 한다. 신청한 내용을 따라 담임목회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 소그룹을 배정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담임목회자만 알고 있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선택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되며 동시에 중직자들이 리더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러나 무조건 선택할 수 없고 본인의 허락을 받은 후 소그룹에 배정될 수 있다. 처음 구성하게 되는 소그룹 인원은 10명 이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넷째, 연세가 높으신 이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어 소그룹을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권을 존중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으나, 비슷한 또래들로 구성된 소그룹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모임 순서도 다소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섯째,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에게도 소그룹을 선택하도록 한다. 청년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는 결혼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청년들이 부부들이 모이는 소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면 허락한다. 이와 같은 구성방법과 원칙하에 의성교회 소그룹은 운영된다.

제 3 절 소그룹 운영 지침서

의성교회 소그룹은 운영지침서에 따라 움직인다. 소그룹의 운영 지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소그룹 구성원 조직과 역할, 둘째, 소그룹 모임의 원칙, 마지막으로 소그룹 분가의 원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그룹 구성원 조직과 역할

의성교회 소그룹의 장점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기능을 다한다는 것이다(엡 4:1-16). 리더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전통적 교회의 모습과 상이한 점이다.

가. 소그룹 구성원의 조직¹²⁷⁾

소그룹은 보편적으로 6-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 혹은 대행리더, 예비리더, 강사, 선교담당, 친교담당, 찬양담당, 그리고 재정담당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조직이며 리더의 임의로 이외의 조직들을 구성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소그룹 구성원의 역할

소그룹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는 담임목회자에게 소그룹 사역을 위임받은 평신도로서, 구성원들의 삶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목양한다. 소그룹모임에 참여, 공적인 예배 참여와 새가족 성경공부 및 삶 공부에 참여하여 수료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영혼구원에 힘쓰도록 격려한다.

둘째, 예비리더는 소그룹 리더가 임명한 사람으로서 소그룹 분가를 앞두고 임명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그룹 인도를 맡겨서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훈련한다. 예비 리더를 선출할 때는 일차적인 권한은 리더에게 주고 교회는 검토하고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셋째, 강사는 소그룹 모임 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사의 역할이 목자의 역할을 능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는 강사가 소그룹의 모임을 주도하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성경공부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특징은 성경공부가 아니라, 교안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강사들은 교안에 나오는 대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면 된다.¹²⁸⁾

넷째, 선교 담당은 말 그대로 자신이 선교사와 구성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선교소식을 구성원과 선교위원회에 전하고, 선교현금을 재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친교담당의 역할은 새 가족이나 소그룹이 친교모임을 가질 때 소그룹 상호간에 어색함이 없도록 도우며 또한 더욱더 친밀해 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127) Ibid., 88-89.

128) 부록 4. 성경공부 교안 참조.

여섯째, 찬양담당자의 역할은 소그룹 모임 시 교안에 나와 있는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나 반드시 교안에 나와 있는 찬양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찬양담당자가 준비해온 찬양으로 인도해도 된다.

2. 소그룹 모임의 원칙과 순서¹²⁹⁾

소그룹 모임의 원칙을 가급적이면 교회가 제시한 방식을 따르되 핵심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리더와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역장이나 교구장을 통해 담임목회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가. 소그룹 모임의 원칙

소그룹 모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 모임은 지식적 습득이 아니라, 삶을 나눈 것에 중점을 둔다. 사건보다는 자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성'에 관한 이야기, 돈거래,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헐담하는 것이다. 소그룹의 경건함이 무너지고, 성도 상호간에 신뢰가 깨어지며 동시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공동체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소그룹 식구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면 순서와 상관없이 시작하라(예: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할 때 소그룹 안에 역동과 치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다.

셋째, 불신자가 참석했을 경우는 1-3주 정도는 순서를 무시하고 삶을 나누고 특별히 불신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소그룹으로 초청되거나 전도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다가 온 사람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에 둔다. 소그룹의 목표는 영혼구원이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129) 천석길, "가정교회," 제 7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집, 36-40.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다.

다섯째, 모임장소는 자율에 맡긴다. 소그룹이 출발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리더의 집에서 모이다가 그 이후로는 구성원들의 가정에서 모이도록 한다. 이것은 원칙이라기보다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유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과 같다. 마음을 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엡 2:19)임을 느낀다. 합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한 돌아가는 순서에 넣지 않는다.

나. 모임 순서

소그룹 모임의 순서는 애찬-찬양(25분)-광고(3분)-성경공부(20분)-나눔의 시간(1시간 이상)-중보기도(15분)-선교와 전도, 도전(15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애찬

애찬은 반드시 먼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유는 애찬 없이 소그룹 모임을 먼저 가진 경우 빨리 모임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반해 애찬을 먼저 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겨 더 풍성한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은 같이 밥을 먹고 또한 애찬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쉽다(행 2:42-47). 식사준비는 자유롭게 소그룹 상황에 맞게 정한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질 때는 해당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 어느 곳에서 모이든지 구성원들 모두가 음식을 준비해가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 소그룹 리더의 집에서 항상 모이고, 그곳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다. 소그룹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된다. 단 1회 식사비용이 약 2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정마다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마다 준비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으로 섬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설거지는 남성 성도들이 담당함으로 여성 성도들의 수고와 부담을 덜어준다.

(2) 찬양

소그룹의 구성원에 따라 찬송가이든 CCM찬양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며, 찬양 담당자는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 사역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구성원들이 악기를 들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좋다. 특별히 찬양의 가사는 송영, 경배와 찬양, 전도와 선교, 성도의 교제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부르게 한다.

(3) 광고

소그룹 사역과 함께 대그룹 사역도 중요하다. 소그룹은 대그룹 교회의 한 공동체이다. 광고를 통하여 대그룹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4) 성경공부

소그룹은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선포'가 있어야 함으로 성경공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성경공부 주제는 주일설교를 중심으로 제작된 교안을 사용하되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경공부는 나눔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는 교역자들이 인도하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배우면 된다.

(5) 나눔

나눔은 소그룹 모임의 꽃과 같다. 나눔의 시간은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로 시작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노출시킬 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인도자는 구성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노출하려 할 때 조정해 주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노출을 했을 경우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는 자주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나눔을 할 때에는 사무적이거나 식상한 대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경청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한다. 구성원

들이 나눈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코멘트를 달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진솔한 나눔은 어려워진다.

(6) 중보기도

이 시간에 소그룹 리더는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기도할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기도 요청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주일에 모였을 때 반드시 기도 응답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기도 응답이 될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또한 담임목회자와 교역자, 교회공동체, 전도대상자, 지역복음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7) 선교와 전도의 도전

의성교회의 소그룹은 영혼구원과 선교 지향적이기 때문에 소그룹마다 섬기는 선교사가 연결되어 있다. 소그룹의 이름을 정할 때 선교사가 있는 나라나, 교회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다(예: 몽골목장). 선교 담당의 역할을 선교사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선교 현황과 기도제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소그룹 식구들과 교회 선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전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야 할 사명이기에 선교담당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룬다. 또한 소그룹에서 모금한 선교 헌금을 재정부에 제출하면 재 정부가 재정을 더해서 해당 선교사에게 송금한다. 또한 다섯 명의 전도대상자인 VIP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한다. 세 가족 초청 잔치를 열어 전도에도 힘쓴다.

3. 소그룹 분가의 원칙과 방법¹³⁰⁾

가. 분가 원칙

소그룹 인원은 6명-12명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이 더 많아졌을 경우에 어려움이 생긴다. 구성원들 중에서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지체가 있게 되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넘을 경우 예비리더를 세워 분가를 한

130) Ibid., 45-47.

다. 예비리더 중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라도 대행리더로 세워 분가하는 것이 좋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어도 소그룹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면 대행리더로 세운 후 성경공부를 하면 된다. 먼저, 대행 목자로 임명 받은 후 리더로 임명하면 된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전환을 할 때는 분가에 중점을 두지만 정착이 이루어지면 분가보다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둔다.

나. 분가 방법

의성교회에서 실시하는 소그룹은 분가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분가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예배목자에게 주는 것이다. 소그룹 전체 인원 중에 예비리더가 60퍼센트를 선택하고, 리더가 40퍼센트의 인원을 선택하여 분가한다.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은 이미 삶 공부와 소그룹 안에서 리더를 통해 분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오랫동안 분가하지 못하는 소그룹도 리더와 구성원이 힘들어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제 4 절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와 기대

1.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

2015년 현재 의성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이 있는 대그룹 중심의 전통적 교회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예배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참된 사귄(코이노니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성교회 주일 예배 출석인원이 평균적으로 청장년 합해서 약 800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 600명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만 그들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된 사귄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300여명만 대그룹 예배와 주중 예배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한다.

둘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어렵다. 의성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약 200명 정도 있다. 이들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들이다. 그 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대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을 훈련 받아 왔기 때문이며, 주중 봉사나 헌신은 특별한 직분이나 직책을

말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참된 불신자 전도가 어렵다. 의성교회는 해마다 100명 이상의 새가족이 등록을 한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퍼센트 이상이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이다. 교인들에 의해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구원 받은 경우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 현 부천시 원마구 중 2동에 자리를 잡은 지 3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 중에 전도되어 교인 된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기대

의성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목회자가 대그룹 중심의 교회를 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두 번의 개척(델러스 주님의 교회, 인천하늘꿈교회)을 하면서도 목회 철학의 핵심은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었다. 지금도 그 철학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의성교회는 전통적 교회다. 전통적 교회는 당회의 적극적 동의와 참여 없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그룹 중심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회가 소그룹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당회원들과 그의 배우자들을 제자훈련에 동참시키고, 그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될 때 의성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당회원들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 운동을 하게 될 때 중직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구역장들이 당회원들과 같은 목회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에 동참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교인들을 설득시킬 때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정사역원에서 실시하는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여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게 한다. 충분한 훈련의 시간을 보낸 후 모든 중직자들과 구역장들 그리고 새롭게 선발된 리더십들을 구성하여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소그룹 사역의 발전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은 전통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귄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불신자를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다림이다. 수적 부흥이라는 압박감을 견뎌내고 성경이 제시하는 원형적 교회 즉,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 대그룹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 6 장 결 론

한국교회는 수년 전부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위기라 함은 수직 성장이 멈추고 질적으로도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30-5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안일함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부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변화를 타락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유지해온 교회를 ‘전통적 교회’라고 부른다. 전통적 교회가 주력해온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대그룹이 모이는 주일예배다.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 척도를 대그룹이 모이는 주일예배에 두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없다. 건강한 교회됨은 주일에 집중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다섯 가지 신앙의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신앙의 요소를 구현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위한, 제자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 대안으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제시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란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교제 그리고 제자훈련의 통합적 기능을 구현하는 교회를 말한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소그룹모임을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먼저 밝히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의성교회를 진단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와 의성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서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방법을 언급 했다.

제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본질에 의해 세워진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의 교회를 말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이다. 건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다. 건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사랑의 이중 계명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다루었다. 먼저,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유형과 평가 그리고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다루었다. 또한 소그룹 사역 활성화의 장애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를 가진 의성교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목회 철학을 살펴보았다. 의성교회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해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았고, 의성교회의 목회 환경, 특별히 부천시 중 2동의 지역적 환경, 경제 및 교육환경, 문화적 환경을 자세히 조사연구해 보고 목회 전망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의성교회의 소그룹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점과 보안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다. 제 5장에서는 의성교회가 전통적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균형을 유지하고 소그룹 중심의 목회 구조를 위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성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소그룹 리더의 중요성과 훈련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 리더 양성에 관한 것이다. 소그룹을 이끌 리더가 없다면 결코 성공적인 소그룹의 운영이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소그룹 리더에 대해서 언급했다. 소그룹의 운영지침서를 통해 리더들이 원칙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소그룹 사역의 평가와 기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전략으로써 소그룹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소그룹은 대그룹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적인 소그룹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 그리고 교제를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소그룹이었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합적 기능을 하는 소그룹을 통해 전통적 교회인 의성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맺는다.

부록 1

의성교회 소그룹 리더 서약서

	서약내용	동의
1	소그룹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전반적일 운영을 책임진다.	
2	매 주일 예배 후에 있는 지역 모임과 필요에 따라 있는 리더를 위한 특별한 모임에 참석한다.	
3	일주일에 새벽기도 3회 이상 참여와 개인 기도를 나눌 이상 한다. 기도할 때마다 소그룹 식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 한다.	
4	매일 성경을 3장 이상씩 읽으며 은혜 받은 내용을 지역장과 함께 나눈다.	
5	십일조를 본 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써의 본을 보인다.	
6	소그룹에 1년에 1명 이상 초청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쓴다.	
7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p data-bbox="370 1360 1356 1453">의성교회 소그룹 리더로 임명 받는 _____는 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성삼위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p> <p data-bbox="727 1535 1058 1570">2015년 월 일</p> <p data-bbox="776 1654 1416 1690">리더: _____ (인)</p>		

부록 2

‘생명의 삶’ 성경공부¹³¹⁾

목적	(1)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2)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3)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적 의문에 답을 얻는다.
기간	13주 ① 1주차: 서론 ② 13주차: 평가
시간	매 회기 약 2시간 30분 소요
등록금	
교재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요단출판사) 새 번역(표준 새 번역 개정판)
과제	(1) 숙제는 예습이 아니고 복습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부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책의 빈칸에 답을 기입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십시오. (2)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주일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2~3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오십시오.(별지참조) (3) 성경구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재수강	다음 경우가 되면 다음 기수에 재수강 해주십시오.(등록도 다시 합니다). (1) 첫 네 번의 강의 중 두 개를 놓치는 경우 (2) 결석일수가 4회가 되는 경우 (3) 요약 숙제가 4주일 치 밀린 경우
졸업	(1) 최종성적 60점 이상(출석점수25, 요약점수25, 시험점수50) (2) 결석일수 3회 이하 (3) 성경 요약을 빠짐없이 하신 분

131) 천석길, 최영기, 가정교회 삶 공부 첫단계, 7.

시험	<p>기말고사(마지막 주)</p> <p>(1) 50퍼센트 단답형</p> <p>(2) 25퍼센트 성경구절 암기</p> <p>(3) 25퍼센트 OX문제</p>
부탁사항	<p>(1) 5분전에 도착해 주십시오. 강의 첫 5분이 중요합니다.</p> <p>(2)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야 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오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찍 가셔야 할 때 수업시간 전에 들려주십시오.</p> <p>(3) 13주 동안 기도하십시오.</p> <p>(4)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도록 하십시오.</p>

부록 3

성경암송구절¹³²⁾

로마서 3:10-11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3: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히브리서 9: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24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1서 5:11-12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132) Ibid., 8.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에베소서 2:8-9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부록 4

구역 성경 나눔

구역 성경 나눔

2015년 7월 5일 구역장 권찰 모임

1. 찬양 : 주 없이 살수 없네 (292장)
2. 성경읽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호수아 7:1-26)
3. 나눔

① 삶 나누기

지난 주간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② 말씀 나누기

신앙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에 보내 버립니다.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십일조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모든 일을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a.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2절-5절).

여리고성의 함락에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를 누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 ()”입니다. 그렇다면 자만심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패배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야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 나에게 있는 영적인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b.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1절, 10절-20절).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범죄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 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을 보면 한 사람(갈미의 아들 아간)의 범죄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적으로 부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쟁할 수 없고,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가 불가능한 이유이며, 우리가 범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c.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1절, 14절-15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자, 36명의 전사자들의 원인을 찾아내시는 작업에 착수 하십니다. 그런데 “지파-족속-가족-남자-한 사람”의 순서를 따라 주범을 잡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짓는 것은 감기처럼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자신도 살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도 삽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되는 것입니다.

☞ 혹시 지금 나는 돌이켜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③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고 성이 부너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 불행의 또 다른 이름 “아골 골짜기” 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만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삶이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④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

정답/ ② a. 자만심, 교만 b. 공동체 c. 기회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동호. “당회가 변해야 주일학교가 산다.” *빛과 소금*. 1996년 제 134호.
- _____. “당회운영, 이대로 좋은가?.” *목회와 신학*. 1999년 제124호.
-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영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사회.” *목회와 신학*. 1992년 8월호.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 배종석, 양희승,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 신현수. *새 가족 바로세우기*. 서울: 크리스천리더, 2013.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0.
- 신상언.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서울: 낮은 울타리, 1999.
-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9.
- _____.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8.
-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폭발한다*.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다문화권목회연구원, 2012.
-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12.
- 주해홍. *통큰 통독*. 서울: 두란노, 2014.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승근. *예배*. 서울: 두란노, 2015.
- 천석길. “가정교회.” *제7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집*. 2011.
- _____, 최영기.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 서울: 요단, 2011.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12.
- 최윤식. “2014년 한국교회를 전망한다,” *크리스찬 스탠다드*, 2014년 2월 17일자.
- 최형근. “본질에 충실한 작고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2014년도 1월호.
- “한국교회 전도를 막는 것들.” *크리스찬 연합신문*, 2014년 8월 29일자.
- 2014년 부천시경제지표조사 요약보고서*. 부천: 부천상공회의소, 2015.

2. 번역서적

- Blackaby, Henry T. and Claud V. King.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문정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 Braoudakis, Paul. *윌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 Com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편집부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3.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테, 1997.
- _____ and Russ Ri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Early, Dave.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유정희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Finzel, Hans.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조기현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2.
- Huber, Wolfgang. *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Knowles, Malcolm S. and Hulda. *그룹 다이내믹스 입문*. 이수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2.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9.
- Ladd, George Eedon.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McBride, Neal F.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2.
- Murray, G. R Beasle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Neighbour, Ralph W. *새로운 삶의 실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셀 교회*. 정진우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3.
- _____.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주희채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 Peterson, Ralph W.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디모테, 1999.
- Pohemann, Horst G.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P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Reid, Clyde.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진요섭 역. 서울: 쿼란출판사, 1996.
- Ridderbos, Herman.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12.
- Rusaw, Rick and Eric Swanson.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황선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nyder, Howard A.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철민, 이승학 역. 서울: 두란노, 1999.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Steinbron, Melvin J. *평신도 목회를 깨우라*. 홍영표 역. 서울: 이레서원, 2000.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 Wagner, C. Peter.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홍원팔 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2003.
- _____.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2006.
- Watson, David.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문, 1991.
- _____. *제자훈련*. 권성수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Waylon B. Moore. *제자 배가의 원리*. 네비게이토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3.
- Webber, Robert E.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 White, James F. *기독교예배학입문*.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1.

3. 외국서적

Frazer, Randy. *Making Room for Lif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2003.

Gorman, Julie A. *Community That is Christian: A Handbook on Small Group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Vita of
Sang Hoon Ha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Uisung Presbyterian Church, Bucheon

Personal Data:

Birth Date: November 23, 1969
 Marital Status: Married to Mi Hyang Han
 Home Address: 14, Simjung-ro 119beon-gil, Wonmi-gu,
 Bucheon
 Denomination: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of Korea
 Ordained: April 8, 2004

Education:

B. A.: Daeshin University, Kyungsan, 1997
 M. Div.: Korea Theological Seminary, Cheonan, 2001
 M. A.: Dallas Baptist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Dallas, 199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201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Uisung Presbyterian Church, Bucheon
 1/2010 to 11/2012 Senior Pastor
 of Heavenly Dream Presbyterian Church,
 Incheon